

2016년 1월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 행복한 교육

새해, 새출발, 꿈을 향한 진로교육  
교과용 도서 제도 변화와 질 관리 방안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겨울방학 활용 노하우



# Contents

## 丙申年 새해

02 새해,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

## 현장 이야기

- 04 꿈이 영그는 현장 광주 빛고을유치원
- 08 삶과 교육 나태순 대전 둔산여고 교장
- 12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최영민 교사의 슬로리딩 교육
- 16 이런 수업 어때요\_중등 안은례 교사의 '사고력 높이는 PBL 수업'
- 20 에너지충전소 대전교사합창단 외
- 22 화제의 교사 김미화 대구 달서공고 교사

## 정책 이야기

기획 새해, 새출발, 꿈을 향한 진로교육

- 26 물이나 나무처럼
- 28 조기에 재능 찾아 제대로 키우는 영재교육
- 30 나의 진로에 한 발 성큼 다가서는 자유학기제
- 32 진정한 실력 키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34 진로정보, 여기 다 있네~
- 36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 38 정책해설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
- 42 초점 중앙교육연수원 / 국립국제교육원
- 46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2015 100대 교육과정 심사 소감
- 50 정책과 소통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 52 정책카툰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06 | 08



##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교과용 도서 제도 변화와 질 관리 방안

54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 및 변화

58 교과용 도서 질 관리를 위한 심사역량 강화 방안

60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디지털이 물고 온 변화와 나노학위

62 학급경영노트 추천서라 생각하고 학생부 작성하자

64 명예기자 리포트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는 마미캅 외

68 시 · 도교육청은 지금 대전 / 경남 / 부산 / 세종 / 대구 / 울산 / 충북

## 교양 이야기

72 학교 밖 학교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74 자녀교육 Q&A 아이와 길등 줄이는 '내 아이 스마트폰' 관리법

76 생각나눔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겨울방학 활용 노하우

78 뉴스브리핑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실현하다 외

80 행복게시판 **행복교육** 무료 구독 신청 & 五자만담



### COVER STORY

인성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 광주 빛고을유치원(원장 정정숙)에 음악을 통해 질서와 협력,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음악반이당이 열렸다. 각기 다른 악기를 탐색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성이 한 뼘 더 자란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5



| 17



# 2016년! 국민의 목소리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6년을 밝히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우리 교육도 다시금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개혁,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라는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인 2,551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

을 절대 평가방식으로 바꿔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도별로 재정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정원 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연계하였으며,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부터 전문대, 대학으로 이어지는 일·학습 병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교까지 확대하고, 취업 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Uni-Tech)을 실시하는 전문대학 16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직자와 같은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학습

자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학교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예방을 통해 학교 내 메르스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학생 자살 예방대책 추진으로 학생 10만 명 당 자살자를 전년도 1.8명에서 1.5명 (15.12월 현재)으로 낮추었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교육부 국정과제와 6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들께서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지역간 격차 없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교육 혁신을 일궈내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예술체육을 강화하고 학교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

# 응답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둘째,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면서, 사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사구조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과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완성해 능력중심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초등 돌봄교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밖으로 이탈한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층·소득·지역·인종·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학교 내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책을 완비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자살을 예방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한국 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도 함께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국민들이 생애주기별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거시적 관점에서 인적자원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귀담아 들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지는 않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올 한 해, 정책 성패의 90%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된다 는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 어 응답할 수 있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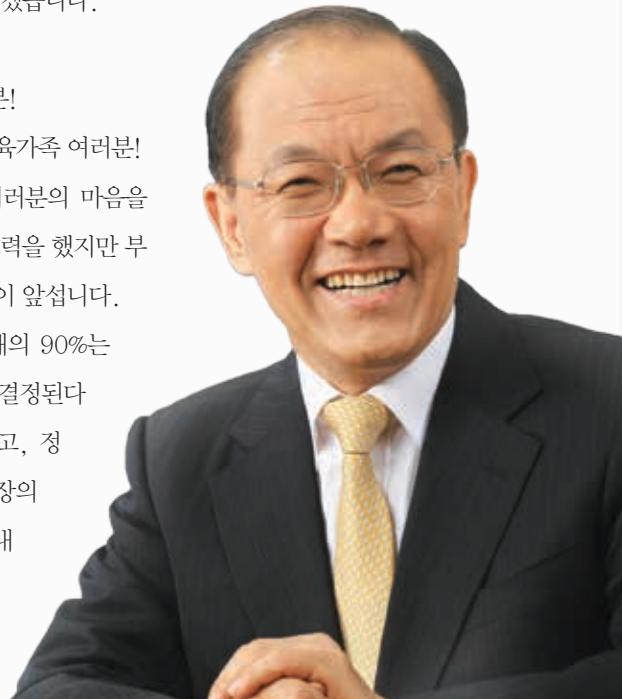
육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丙申年 한 해, 항상 밝고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긍정의 기운이 넘쳐흐르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1.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빛고을유치원은 인근에 위치한 광주천을 자연생태교육장 삼아 ‘들꽃 이야기’를 운영한다.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꽃을 주제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협력, 배려, 나눔, 존중 등 인성요소를 누리과정에 자연스레 녹여낸다.

## 광주 빛고을유치원

# ‘들꽃 이야기’ 속에 피어나는 누리과정 인성교육



“인성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어요. 기본생활습관을 잘 길러내야만 이 유아들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광주 빛고을유치원의 정정숙 원장은 인성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화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인성’의 중요성이야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을 만큼 모두가 공감하지만,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유아들의 성향과 핵가족화로 인해 배려와

나눔에 대한 인식 부재, 여기에 부모들이 이 인지학습을 선호하는 태도에서 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감할 수 있다. 빛고을유치원은 협력, 배려, 나눔, 존중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과 자연생태학습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구와 협력하는 신체 활동, 바른 마음 주고받는 언어활동, 인성활동, 통합적 예술활동, 들꽃 이야기 등 ‘고운 빛깔로 채워 한빛으로 어울리는 빛고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광주천이 들려주는 ‘들꽃 이야기’

광주 대자중학교와 한 올타리 안에 둑지를 틀고 있는 빛고을유치원은 만

4~5세 유아들로 구성된 6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이다. 넓게 트인 유리창 너머로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천변이 자리 잡고 있다. 빛고을유치원은 광주천을 자연생태교육장으로 삼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연간계획을 세워 들꽃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계절별로 인근의 공원과 광주천 일대를 산책하며 들꽃을 관찰하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사랑과 함께 ‘존중’과 ‘협력’ 등의 태도를 익히고 있다.

‘들꽃 이야기’는 3월경 들꽃으로 모둠 이름을 정하는 일로 첫 활동을 시작한다. 자신의 이름 뒤에 예쁜 들꽃 이름을 붙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봄 꽃의 이름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광주천을 산책하며 들꽃을 관찰하고 그 활동은 고스란히 교육활동으로 이어진다. 씨앗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고 <씨앗> 책도 만들어

01 들꽃을 재료로 표현한 미술작품

02 바른 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빛고을유치원 유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01



02





본다. 광주천에 넓게 흘어져 있는 민들레를 관찰하고 몸으로 민들레 훌씨를 표현해 본다. 동식물과 자연을 주제로 ‘동식물을 보호해요’라는 캠페인도 열었다. 둘러앉아 진지하게 캠페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료도 만들었다.

들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 궁금하면 직접 산책길에 들꽃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 토끼풀 꽃을 이용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악세서리는 어버이날 감동(?)의 선물이 된다. 풀꽃, 열매, 나뭇가지를 이용해 우리 동네도 꾸며보고, 벼찌와 들꽃을 이용해 염색도 해본다. 산책길에 수확(?)한 강아지풀은 천연 게임도구가 된다. 일명 ‘강아지풀 빨리 움직이기’ 경기가 열리기 때문이다.

12월 중순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빛고을유치원에서 ‘도토리’를 소재로 들꽃 이야기 수업이 펼쳐졌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꼬마시인들은 도토

리를 주제로 시를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토리 닮은 다람쥐 풀/지렁이 닮은 새 풀/…(중략)’ 여느 시인의 고뇌에 찬 표정이 꼬마시인에게서도 일핏 일핏 느껴져 저절로 미소가 피어난다. 한쪽에서는 하얀 도화지 위에 밀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도토리와 도토리 모자를 붙여 근사한 작품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들꽃 이야기 속에는 자연생태체험 외에도 토의, 과학, 신체, 언어, 미술, 음악, 바깥놀이, 게임, 동시, 동극 등 모든 활동영역이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눔, 협동, 배려, 존중, 효, 질서 등의 인성관련 요소들이 자연스레 녹아있다.

#### 어울림으로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

또한 빛고을유치원에는 유아가 질서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울림이 있는 ‘한

마당’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마당이란 평상시 누리과정 속에서 해왔던 활동을 전체 유아가 모여 어울리는 활동이다.

현재 가족체육한마당, 과학의 날, 알뜰시장, 전래놀이의 날, 독서한마당, 작은 음악회 등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마당’을 진행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가족체육한마당을 제외하고는 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학부모용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대신 유치원에는 참관실이 있어 부모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자녀의 수업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음악한마당은 학급별로 모둠별로 그동안 수업시간에 배우고 익혔던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어떤 노래, 어떤 악기로 연주할지 아이들과 충분히 이



03 '책벌레는 누구일까?' 아이들은 각 층에 마련된 긴이 도서관을 오가며 수시로 책을 읽는다.

04 빛고을유치원은 광주천을 생태교육장 심야 사계절 자연관찰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녹여낸 '들꽃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 김혜경 교사와 유아들. 수업 속에는 협력, 배려, 나눔, 존중 등 비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동이 곳곳에 녹아있다.

06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유아들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유아들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08 컨설팅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 노하우를 다른 유치원에도 보급하고 있는 정정숙 원장



야기한 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질서와 배려를 익혔다. 또 공연을 보면서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과정에 인성의 요소가 속속들이 숨어 있다. 음악한마당이 열리는 주간

에는 강당에 각종 악기와 음악관련 자료를 전시하였다. 구하기 어려운 악기는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대여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악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한마당을 앞두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특한 마음도 지녔다. 유아들은 4개의 팀으로 나눠 가까운 경로당을 방문해 그동안 익힌 오카리나 연주와 신명나는 우리가락 장구 공연, 끼 넘치는 울동무대를 한껏 선보였다.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해드리고,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누리과정은 교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도 많

이 필요하고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경험 많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의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정정숙 원장은 컨설팅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 노하우를 다른 유치원에도 보급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아이들의 인성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김혜경 교사의 말이다. 활짝 웃는 선생님들과 122명의 유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 한다. ☺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나태순 교장은 이런 사람을 키우는 일야야말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나태순 교장은 학생들이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인성지도는 부슬비 맞듯 학교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이지만, 특히 2011년 대전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맡으면서 더욱 본격화·체계화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여러 학교폭력대책들이 그의 손을 거쳐 속속 마련돼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 나태순 대전 둔산여고 교장

# “교육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성을 키우는 일”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어떤 일이든 직원에게나, 학생에게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구한다. 행정실을 거치지 않아도 교장실로 통하고, 전화를 걸면 학교장이 직접 받는다. 자신을 밝힐 때도 직위를 빼고 이름 석 자만 내놓는다. 그에게 닿는 길은 언제나 편안하고 가볍다.

### ‘스펀지’로 불리는 선생님

나태순(61) 교장이 버리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 얻고 싶은 것은 ‘권위’이다. 자리와 연륜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

는 관대한 자엄타관(自嚴他寬)의 자세로 살았다. 그를 아는 이들 사이에서 ‘인품이 으뜸인 분’으로 통하는 이유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존중’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처음엔 일의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결국 일을 끝내는 힘은 자율적인 의지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은 어기기 어렵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목표는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나태순 교장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자초지종을 세세히 설명하는 편이다. 교사시절부터 학급규칙 운영을 학생들에게 맡기고 토론과 대화를 일상화

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스펀지’. 쭉쭉 흡수하듯 무슨 일이든 수용해 준다는 뜻에서다.

### ‘사람은 열 번 된다’는 가르침

학생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온 그이지만, 초임시절엔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훈계 일변도로 지도한 점이 후회로 남는다. 밖으로 거칠게 드러난 행동만 보았지 그 안에 담긴 여린 마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통하는 걸까. 스승에게는 제자를 엄하게 꾸짖은 일이 아픔으로 남았지만, 제자는 스승의 훈계를 사랑으로 기억한다. ’90년대 말 고3 담임을 하던 무렵, 무단결석과 음주 등으로 어지간히 속을 썩이던 한 제자가 이후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며 그를 찾아왔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혼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쁘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는 것이다.

“사람은 열 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자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요. 교사는 아무리 사소한 점이라도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발전적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독한 말은 ‘교육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학생의 앞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과 말로 ‘사람은 열 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대전지역 학교폭력대책 선두에 서다

나태순 교장은 학생들이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데 역할을 두어왔다. 인성지도는 부슬비 맞듯 학교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이지만, 특히 2011년 대전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맡으면서 더욱 본격화·체계화했다.

당시 학교폭력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교육계의 최대 과제였다. 연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학교폭력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전시교육청도 궤를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했다.

나태순 교장은 당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학교폭력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무려 13%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직, 책임, 존중, 배려와 같은

덕목들이나 가르치고, 수업시간이나 조회·종례 시간에 훈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백 명씩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고 돌아가기까지 겪는 마음고생을 줄여야 학교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대전시교육청의 초대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맡게 된 나태순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새솔센터’와 피해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적응을 돋기 위한 ‘해맑음센터’를 개소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가정으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돋기 위한 ‘가정형 Wee센터’를 마련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그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의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상담기관, 정신건강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기타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 또한 각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고 교사들에 대한 각종 연수를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인성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보람이다.

#### 인간애와 회복탄력성 필요

나태순 교장은 너나없이 참 가난

01 무슨 일이든 수용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태순 교장을 ‘스펀지’라 부른다.

02 취재진이 학생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나태순 교장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어디서 누가 무슨 일로 사진을 찍는지,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후 이해를 구했다. 단편적인 일로도 그의 태도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하던 어린 시절 5,6학년 담임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교육자의 열정과 인내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다. 그 시절 담임선생님은 아침도시락을 싸와 아이들과 나눠 드시며 아무 대가 없이 밤늦도록 학업을 쟁겨주셨다.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던 담임선생님의 모습은 어린 나태순에게 교육자의 표본이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미완성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자기 본위일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훌륭한 교육자라면, 우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인내하고 다시 따듯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나태순 교장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는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를 의연하게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이들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교육자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

#### 남을 위한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

나태순 교장은 현재 대전의 명문으

로 꼽히는 둔산여고에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오롯이 쏟고 있다. 아침이면 빠짐없이 교문에 나와 학생들을 맞으며 올바른 언어 사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한다. 수년 전 충남고에 근무할 당시 만난 송희옥 교장은 그에게 학생 중심의 학교경영을 보여준 사표가 됐다.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워 ‘관리’ 하던 문화가 팽배하던 시절에 송희옥 선생은 학생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무엇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희옥 교장을 통해 그는 학교경영에 대한 남다른 자극과 배움을 얻었다.

‘사람을 키우면서 나 역시 성장할 수 있으니 교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나태순 교장.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을 도왔다고 공치사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못봤다’고 하던 말씀이나 불경에 쓰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성경에 담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뜻을 쫓으며 살다보니 어느덧 올 8월이면 교직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겸손과 베풀음을 실천하고자 애써 온 지난 시간의 끝에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남을 존중하고 돋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노라고. ❷

하루에도 수많은 신간도서가 쏟아지는 정보의 흥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읽고(다독), 빠르게 읽는(속독) 독서습관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책을 깊이 있게, 천천히 읽어보자는 취지의 ‘슬로리딩’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최영민 용인 성서초 교사도 그 중 하나다. 깊이 있는 책읽기를 통해 책읽는 즐거움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 최영민 교사의 슬로리딩 교육

# 천천히 깊게 읽으며 생각하는 힘 기른다

슬로리딩이란 우리말로 ‘느리게 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게 읽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성서초(교장 김경숙) 최영민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문학작품을 주교재로, 교과서를 부교재로 삼아 슬로리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자전거 도둑』을 주교재로 삼아 국어과, 사회과 혹은 통합교과 형태로 수업을 해왔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 성서초 6학년 1반 교실에서는 국어과 ‘다양한 생각’ 단원 수업이 이뤄졌다.

### 저자의 마음을 읽는 ‘슬로리딩’

주교재인 『자전거 도둑』은 故 박완서 작가의 작품으로 ‘시인의 꿈’ ‘옥상의 민들레꽃’ 등 6편의 단편이 묶인 동화집이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맞닥뜨리는 선택의 문제, 행복, 진정성 등 의 근본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날 단편 ‘자전거 도둑’, ‘시인의 꿈’, ‘옥상의 민들레꽃’의 일부를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미 3~4번 읽은 책이지만 다시 해당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장면들을 상상하며 박완서의 마

음속으로 들어가 본다. ‘자전거 도둑’을 통해 학생들은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은 떨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것 같다.’ ‘자기 내면에 도사린 부도덕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기 곁에는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 등의 생각들을 쏟아낸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옥상에서 죽으려고 결심한 한 아이가 옥상에 편 민들레를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은 ‘옥상의 민들레꽃’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목숨을 끊고 좌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포기하지 않고 꾫꿋하게 살아가는 민들레 꽃을 보여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생명을 살린 것은 사랑이다. (박완서 저자는) 금은보화가 아닌 사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세 편의 작품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읽어냈을까? 각자의 생각을 화이트보드에 담아본다. “저는 ‘희



01 슬로리딩 교육을 하며 아이들과 만들어온 학급문집

02 최영민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문학적인 글, 설득적인 글, 사실적인 글로 나눠 슬로리딩 교육을 하고 있다. 슬로리딩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책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어려운 책도 거침없이 읽게 되었다는 점이다.



02



03



04



05

**03** 아이들이 소리 내어 읽으면서 장면들을 상상하고 저자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04** 짧은 글쓰기부터 서평까지 다양한 글쓰기 훈련이 이뤄진다.

**05** 최영민 교사는 생각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슬로리딩 교육을 한다.

**06** 슬로리딩 교육은 텍스트만 읽어내는 책읽기가 아니라 저자의 깊은 내면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저자의 생각을 화이트보드에 옮기고 있다.

망'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글에서 부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희망'을 갖고 고치면 되고, 두 번째 글에서 말을 찾으려는 생각이 사라지는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갖고 살며, 세 번째 글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려 해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렌즈가 보여요."(마정민)

"자전거 도둑'은 도덕, '시인의 꿈'은 상상, '옥상의 민들레꽃'은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생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도덕을 실천할 수 있고, 상상은 생명만이 할 수

있으며, 나눔은 사람과 사람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예원) 저자의 깊은 내면을 엿본 느낌이다.

### 생각을 키우는 교육

최영민 교사는 "생각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슬로리딩 교육을 하고 있다. 수업의 중심엔 늘 아이들이 있고, 때문에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을 주제로 잡아 수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날 자신의 생각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소개한 것처럼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다함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려고 애쓰고 있다. 또 글쓰기 훈련을 슬로리딩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놓고 짧은 글쓰기부터 서평까지 다양한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다.

"짧은 글쓰기도 하지 않으려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짧게라도 쓰라고 계속 다독였죠. 어느 날 '자전거 도둑'의 상반된 주제를 뽑아서 글쓰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주인공 수남이가 자동차를 긁은 사건에 대해 수사반장의 입장이 되어 '수남이는 왜 잘못이 없는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더라고요.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영민 교사는 국어과를 크게 문학적인 글(4단원-효과적인 관용 표현, 11-문학의 향기, 1-인물의 삶을 찾아서, 5-이야기 바꾸어 쓰기), 설득적인 글(9-생각과 논리, 3-적절한 근거, 6-타당한 주장, 7-다양한 생각), 사실적인 글(2-자료를 활용한 발표, 10-뉴스와 생활, 8-정보를 활용한 기사문)로 나눠 슬로리딩 교육을 한다. 가령 논설문과 연설문은 모두 설



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문학작품 속에서 주제를 뽑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 후 연설문을 작성하여 실제로 시청각실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발표를 한다. 논설문과 연설문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직업과 진로교육을 연계하기도 한다. 작품 속의 직업을 찾아보고 오늘날 사라진 직업과 새롭게 생겨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신문, 인터넷 등 보충자료를 통해 취업을 하고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나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또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험담이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무기명으로 받아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 교사는 매 학기 학생들과 서점나들이를 하고, 서평을 써서 친구에게 책을 추천하게 한다. 저자에게 편지를 쓰고, 받는 답장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이다.

### 어려운 책을 거침없이 읽는 아이들

‘슬로리딩’은 학생들의 독서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비교적 두께가 얇아 읽기에 부담 없거나 학습만화를 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슬로리딩 교육이 이뤄지면서 아이들은 어려운 책도 거침없이 읽기 시작했다. 책을 보는 한목도 한층 성장했다. 전문서적은 물론, 300페이지를 훌쩍 넘기는 책도 쉽게 집어 듣다고.

“슬로리딩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두꺼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꺼운 책은 그냥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는 단어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습관도 생겼어요.” 황유선 학생의 설명이다.

슬로리딩은 1950년대 일본의 한 중학교 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시모토 다케시 교사는 6년간의 기록을 엮어 『슬로리딩』이란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성서초 슬로리딩 교육의 시발점이 되었다. 슬로

리딩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주교재로 활용하는 만큼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까다롭다. 성장체험 소설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어야 한다. 자세한 묘사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면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텍스트가 된다.

그렇게 선정한 작품이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자전거도둑』이었다. 최 교사는 “혼자서 슬로리딩 교육을 하면 어려움이 많다. 동학년 교사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권한다. 경험해보니 6~7번을 완독한 후에야 오류를 발견하는 부분이 생기더라. 동료들이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한다.

슬로리딩 교육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 최영민 교사. 그는 왜 슬로리딩 교육을 하는 것일까?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깊이 있게 접근하는 양질의 독서를 통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해요. 이런 양질의 독서습관이 다른 책으로도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책을 통해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안은례 구미 형곡고등학교 교사는 매 시간 아이들에게 문제 상황을 만들어 준다. 모둠별로 협동 과제를 제시하고,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가르치도록 돋는다. 문제중심학습(PBL)과 거꾸로 수업, 협동 수업을 하나로 융합하여 6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수업모형이다. 안은례 사회교사의 ‘사고력 높이는 PBL 수업’을 소개한다.

## 안은례 교사의 ‘사고력 높이는 PBL 수업’

#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 생소한 개념도 머리에 쏙쏙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 아들이 훔치고 나가는 현장을 발견하고 빨랫대로 도둑을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뇌사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다면, 집 주인 아들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경북 구미 형곡고등학교(교장 장재성) 2학년 2반 일반선택교과 ‘법과 정치’ 수업. 안은례 교사는 최근 논란이 된 ‘뇌사도둑’ 사건에 대해 아이들에게 물었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 보도를 본 후 학생들은 “무죄 아닌가요?”라며 의아해 했다. 이날 수업은 평소 아이들이 어려워하

는 범죄와 형법 단원. 생소한 용어와 어려운 개념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잃는 시간이지만, “왜 그럴까?”라는 문제 상황이 주어지자 아이들은 앞으로 할 학습 내용에 대해 궁금해 했다.

### 모둠마다 문제 상황 협력해 해결

5~6명씩 6모둠으로 앉은 학생들은 모둠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된 사안들이다. 태블릿PC를 한 대씩 갖춘 각 모둠은 형법조문을 검색해 찾아

쓰고, 요약노트에 학습내용을 정리한 후 주제별 사안을 논의했다. 2모둠에게 주어진 논의 주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 ‘형과 몸싸움을 하던 의붓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동생이 빼어든 칼에 찔려 사망했다. 동생은 처벌(과실치상죄) 받게 될까?’에 대해 아이들은 “동생에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생긴 가해 행위”라며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4모둠은 ‘돈을 빌려가고 고의로 갚지 않는 친구. 친구의 이민수속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아 출국을 막았다면, 죄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는 논의 결과를 내놨다.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힘으로 권리 구제받을 수 있다.”며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를 근거로 들었다. 각 모둠은 하나의 주제별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각자 다른 조로 흩어졌다. 1~6모둠 학생들이 각 1명씩으로

**01** 상장 스티커. 2차 모둠에서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학생을 선정해 상장 스티커를 부여한다.

**02** 1차 모둠활동 후 학생들은 다시 2차 모둠을 만들고 '서로 가르치기'로 배운 내용을 공유한다.



02

구성된 2차 모둠에서는 1차 모둠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이 때 안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잘못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 수업 내내 바쁘게 오고갔다.

### 문제중심학습으로 사고력 쑥쑥

안 교사는 활동이 끝난 후, 학습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뇌사도둑’ 사건의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유죄”라고 대답했다. 이채윤 양은 “생각이 달라졌다. 형법 제21조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주인집 이들은 도둑이 쓰러져있을 때도 과하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은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팀별, 개인별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를 법 영역 수업에 활용하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됐어요.”

안 교사는 PBL 수업으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제를 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더니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높아지게 된 것. 고교 일반선택과목을 가르치다보니, 대입 수능에서 이 교



과를 선택하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은 ‘내신만 적당히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놀라웠다. 이는 6년 전부터 조금씩 수업에 적용

해 온 PBL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끌어들여 온 계기가 됐다. 지난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2차시 수업을 블록으로 설정해 1단위 수업으로 진행하다 올해는 1차시에 맞는 PBL 수업을 개발,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학습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수행 계획을 교사가 학습목표에 보다 적합하게 설계해 시간을 줄이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팀별로 해석하는 과정은

1차시 안에 그대로 녹였다. “학습효과는 더욱 높아졌다.”는 안 교사는 “학습 결과물은 역할극, UOC, 노래 개사하기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말했다.

### 모둠별 ‘서로 가르치기’로 참여도 UP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 ‘서로 가르치기’다. 수업시간 6개 주제를 만들고,

재결성된 모둠에서 서로 다른 모둠의 학습결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하니, 수업참여도는 더욱 높아졌다.

“PBL+협동학습+거꾸로 수업을 융합한 수업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들끼리 팀별로 협동학습을 한 후,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거꾸로 수업처럼 1차 모둠에서 학습하고 2차 모둠에서 다시 한 번 가르치면서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아이들 기억에 오래 남을 뿐더러 수업에 무기력한 아이가 없어진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이 때 교사는 수업에서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 안 교사는 “상위그룹 학생들에게는 학습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 하는 문



04



05



06

**03** 교사는 수업의 '촉진자'로서 아이들이 잘못된 내용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지 매번 확인해야 한다.

**04**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다.

**05** 각 모둠별로 1대의 태블릿PC를 갖추고 학습 내용을 찾아 요약노트에 정리한다.

**06** 활동과제로 만든 학습결과물

제보다는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고,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비결은 다양한 게임 활동이다. 전시학습을 OX퀴즈로 제시하거나 암호 찾기, 문제쓰레기함 등을 개발해 다양하게 진행하는 한편, 평가 또한 토론판정지, 모둠 간의 평가와 성찰일지를 통해 자기·동료평가로 이끌었다.

### 교사도 즐거워야 ‘좋은 수업’

앞으로 그는 그간의 내용 요약집과 활동지를 묶어 ‘워크북’을 개발할 예정. 학생들이 워크북을 교과서로 활용하며 보다 쉽게 수업 준비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올러, 그

는 첫 수업에서 항상 수업의 연간 계획을 소개한다. “이 수업을 통해서 너희는 법을 잘 지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했다. 안 교사는

“좋은 수업은 학생이 즐겁고, 교사도 즐거워야 한다.”며 “수업에 고민이 생겼을 때 진정으로 조언해 주는 선배교사가 멘토가 되어준 게 수업개선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수업동료’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

### 〈표〉 단원분석 및 학습 활동 설정 (예)

대단원	중단원	학습 활동
III. 우리나라의 헌법	1.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① 가정헌법 세우기
	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② 청소년정책 제안하기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③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④ 모의 의회를 해보자 ⑤ 공익광고 만들기
IV. 개인생활과 법	1. 민법의 기초 이해	⑥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2. 계약과 불법 행위	⑦ 합의서를 작성해 보자
	3. 개인 간의 분쟁 해결	⑧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4. 생활 속의 법	⑨ 모의재판을 해 보자 ⑩ 유언장 작성해 보자
V. 사회생활과 법	1. 범죄의 성립과 형사절차	법원을 견학가자 ☞⑨ 교수-학습과정안에 소감문
VI. 국제정치와 법	1. 국제 사회의 이해	국제신문을 만들자 ☞12월에 실시

## 대전교사합창단

# 한민족의 ‘흔’ 담은 하모니로 세계를 울린다

‘코리아 환타지’가 한민족의 혼을 담은 듯 아름다운 하모니로 배재대 21세기관을 울렸다. 2015년의 마지막 공연으로 대전교사합창단이 소리새 합창단과 협연을 펼치고 있는 순간이다. 올해로 창단 18주년을 맞고 있는 합창단은 대전교육의 자랑거리이다.

합창단은 합창에 관심과 열의가 넘치는 뜻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고운 마음을 기르고 음악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합창을 교사인 우리들 먼저 한 번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로 중등 음악교사들을 중심으로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중등 음악선생님들끼리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가입 단원이 늘고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총 60명, 매번 연주회에 참가하는 인원만도 45명이 넘는 제법 큰 규모의 합창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5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청소년합창단실에서 함께 모인다. 지휘자(교사 김재구, 동방고)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연주곡을 직접 정하고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단원이 꼭 한 번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들을 직접 제안하고 고르며 연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창단은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해외 공연에 참가하고 다양한 자선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미 일본, 독일, 브라질, 폐루 등의 국가를 방문하여 한인학교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합창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브라질 상파울루 문화원에서 초청하여 브라질 한인학교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하고 돌아왔다. 해외 공연에서는 주로 ‘아리랑’과 같은 한민족의 정



서를 담아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곡을 연주한다.

매년 정기연주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 두 개의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해 왔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행사에 초대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20대 젊은 선생님부터 70대의 퇴직한 교원이 함께하는 대전교사합창단.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여 ‘합창’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된 그들에게서 대한민국 합창교육의 아름다운 미래와 역사를 동시에 발견하였다. ☺

글\_ 박상희 명예기자

지역 : 대전광역시

대상 : 합창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교사 누구나

대표 : 정진은(대전대청중 042-934-8860)

## 경주초등과학교사연구회

# 생활 속 과학 ‘과학쇼’로 연출

경주초등과학교사연구회는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속의 과학, 책 속에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던 과학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쇼를 만들기 위해 초등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연구회다.

과학쇼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한 번 과학쇼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선생님들이 무대 아래에서 흘리는 구슬땀은 상상 그

## 전국컴퓨팅교사협회

# 대한민국의 SW와 컴퓨팅을 이끈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수 · 학습 콘텐츠는 없을까?’



2010년 파주지역 10여 명의 선생님은 디지털콘텐츠연구회를 결성하고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문집과 수업을 위한 디지털퍼블리싱,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해 왔다.

신갑천 교사는 “회원들이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자는 논의로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SW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하 SW교육모임)’의 첫 단추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코딩교육이 활발한데 비해, 국내에서는 궁금한 점

이 생겨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공간에 새롭게 태어난 SW교육모임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페이스북(3,639명)과 카페(1,490명)에서는 수업사례와 다양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며, 현장과 학계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SW교육모임은 다시 한 번 ‘전국컴퓨팅교사협회’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 교사는 “전국컴퓨팅교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룹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

지역 : 전국

대상 : 소프트웨어교육과 컴퓨팅에 관심이 있는 초등 교사

대표 : 강성현(임진초) 홈페이지 [www.kcsta.org](http://www.kcsta.org)

이상이다. 공연을 위한 아이디어 컨셉 회의와 프로그램 회의를 거치고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하나씩 줄여나간다. 이런 노력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은 손에 익을 때까지 수없이 반복훈련을 거쳐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김진화 대표는 “과학’이라고 하면 흔히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과학쇼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관객들의 모습에서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과학을 선물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고 말한다. 2012년 7명이던 회원은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초청 무대도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과학싹큰잔치’에 초청받은 연구회는 ‘액화질소가 뭐니?’ ‘힘을 내요! 공기 파워~’ 등의 과학쇼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지역 : 경주

대상 : 과학쇼에 관심있는 초등교사

대표 : 김진화(용황초등학교 054-776-2672)

## 김미화 대구 달서공고 교사

# 교복 입고 한걸음 더 가까이… “사랑은 나의 무기”

나이 마흔. 어린 학생들과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 나이. 그 해 한 여교사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교문을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학생들은 “와~”하며 학교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다. 4층에서 창문으로 내려다 보곤 교무실까지 뛰어내려와 보고 가는 학생들도 많았다. 13년 전 교복을 입고 첫 출근한 김미화(52) 대구 달서공고 교사의 회고다.

“그날 수업하러 들어가는 교실마다 핵성이 터졌어요(웃음). 조금씩 아이들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였지요. 이벤트로 교복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면 어떨까하고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입다가 7년 전부터는 매일 교복을 입는다는 김 교사. 이미 쉰을 넘긴 나이지만, 그 때 그 마음으로 아침마다 교복을 차려입는다고 했다.

### ‘사제동행’으로 시작한 교복 입기

학생들은 어릴수록 더욱 열광했다. 그리고 동료교사들은 그를 보곤 “용감하다.” 했다. 간혹 “별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이어지는 그의 열정에 모두들 인정하고 밀았다고. “이젠 교복이 나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며 김 교사는 웃는다.

“아이들에게 쉼터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 찾아가면 반겨주는 선생님, 불만을 길게 들어놓아도 들어주는 선생님, 친절함과 따뜻함이 배어 나오는 선생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

01 쉰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소녀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김미화 교사

02 김 교사는 매일 아침 희망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며 등교 맞이를 한다.

03 교복은 아이들과의 거리를 한 뼘 더 가깝게 만들었다.

04 창의인성교육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미화 교사





04

## 창의인성교육부

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요.”  
아이들과의 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졌다. 특성화고 취  
업 시즌이면 고3 여학생들은 면접 때 필요하다며 치마폭을  
줄이지 않은 선생님의 ‘단정한’ 교복치마를 빌려가기도 한  
다. 교복을 깨끗하게 세탁해 물려주고 간 졸업생도 있다.  
학부모들은 면담을 할 때 “정감이 간다.”며 오히려 더 좋아  
했다. 또 하나 본의 아닌 효과도 얻었다. 흰 양말을 발목  
까지 곱게 접어신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길이는 학생들에게  
는 ‘교복지도 모델’이 되고 있는 셈. “가끔 만학도로 오해  
를 받거나, 교복을 입고 교문 밖을 나서면 남다른 시선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얻는 게 더 많다.”고 김 교사는 말한다.

### 달력에 적힌 ‘4,929’ 숫자의 비밀

김 교사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원칙이 있다.  
아이들을 ‘이름’으로 불러주기. 그는 수업에 들어가는 모든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학기 초부터 외우기 시작한다. 수업 전  
매일같이 출석부를 보고 외우는 게 일이다보니, 전교에서  
학생 이름을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교사라고.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는 일도 10여 년 전부터 지켜온 일  
이다. 국어교사로서 아이들의 언어순화를 생활 속에서 보  
여주자고 시작해 지금껏 실천해 오고 있다. 아이들 이름에  
‘님’자를 붙이게 된 계기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말이 거칠

고 욕을 상습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OO님이 때렸어요!”라  
고 말할 때는 서로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스승의 날에는 그녀만의 의식으로, 아이들의 앞에 끓  
어앉아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10년 넘게 치러오고 있  
다. 또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막간을 이용해 바이올린으로 캐럴 연주도 아이들에게 들  
려준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을 보면, 먼 훗  
날을 위해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 매일매일 도토리를 심  
는 부피에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처럼 당장의 효과가 없  
다고 해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먼 훗날 옛 기억을 떠올릴 때  
제가 줬던 다정함과 따뜻함이 남을 존중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걸로 큰 힘이 되지요.”

김 교사의 책상에는 언제나 ‘제겐 사랑이 무기입니다’ 글  
귀가 적혀있다. 처음 그 때 그 다짐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  
해서라는 것. 그 옆의 책상 달력에는 의미 모를(?) 숫자도  
적혀있다. 8,319+5,961+4,929. 8,319일은 교사가  
되기 이전까지 살아온 날, 그리고 5,961일은 교복을 입기  
전까지의 교사로서 살아온 날, 그리고 마지막 숫자 4,929  
는 교복을 입기 시작한 날부터 올 연말까지의 날 수이다.  
“3년 뒤엔 교복을 입은 날이 입지 않은 날을 추월하게 된  
다.”는 김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교복 입은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라며 웃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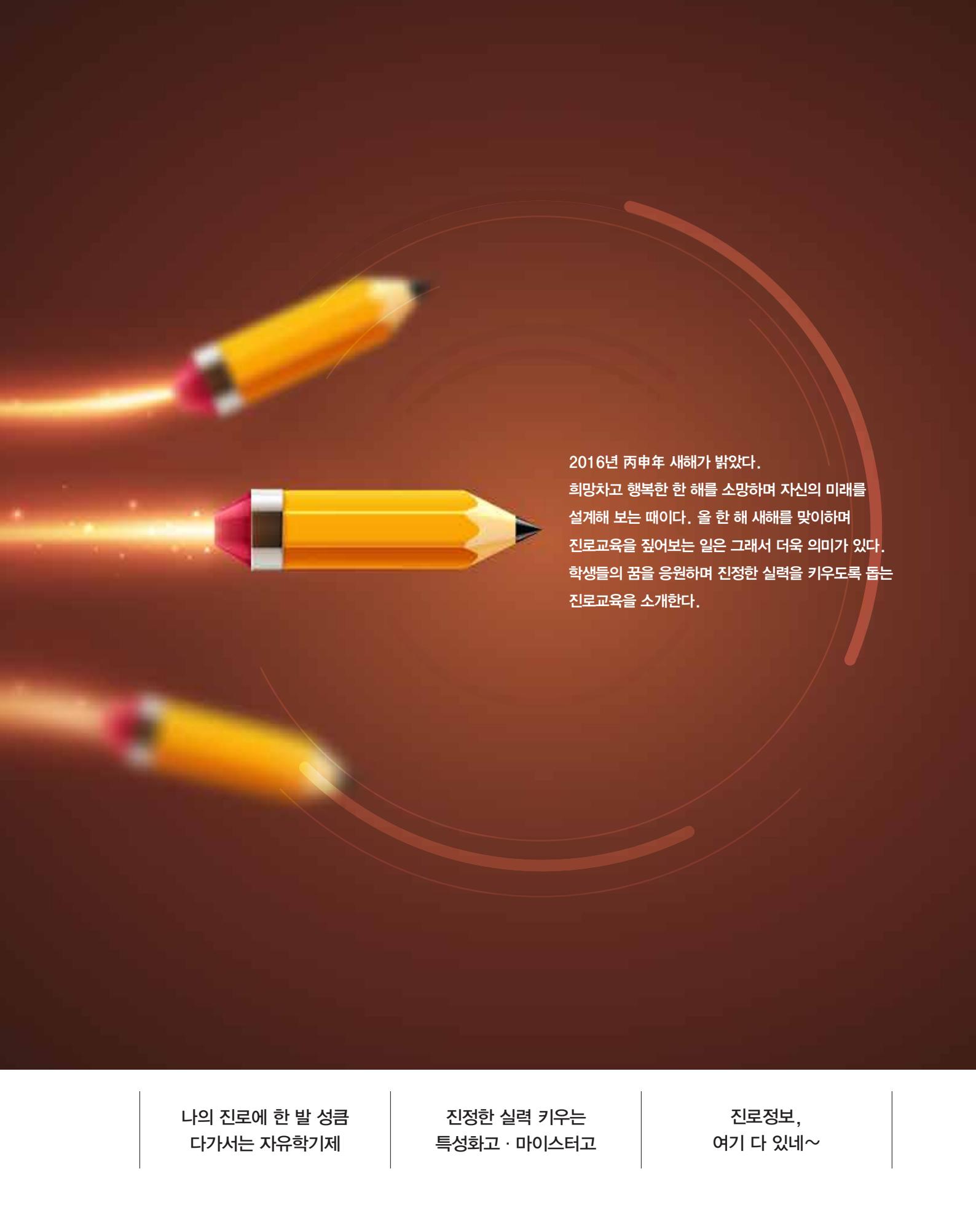


기획

# 새해, 새출발, 꿈을 향한 진로교육

풀이나 나무처럼  
– 2016년 새해를 맞으며 –

조기에 재능 찾아  
제대로 키우는 영재교육



2016년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를 소망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때이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며  
진로교육을 짚어보는 일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진정한 실력을 키우도록 돋는  
진로교육을 소개한다.

나의 진로에 한 발 성큼  
다가서는 자유학기제

진정한 실력 키우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진로정보,  
여기 다 있네~

# 풀이나 나무처럼

– 2016년 새해를 맞으며 –

글\_ 나태주 시인(공주문화원장)

씀벅, 무나 두부가 잘려나가듯 한해가 가고 다시 새로운 해가 되었다. 어찌할 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視角)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던 것을 저렇게 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지난해에 저렇게 살았으면 새해에는 좀 이렇게도 살아보아야 할 일이다. 지난해에 저렇게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해볼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변화를 세상에서 가장 실천하는 것은 자연이다. 나무나 풀들을 좀 보시라. 겨우내 죽은 듯 있다가 봄 되면 일제히 기지개켜듯 새싹을 내밀고 꽃을 피우지 않는가.

실로 봄마다 감탄과 찬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풀이나 나무한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야 한다. 언제든 풀이나 나무는 나의 스승이며 성실한 이웃이며 아름다운 동행. 우리도 새해가 되고 봄이 되면 한그루씩 나무나 풀이 되어 기지개를 켜면서 마음속 함성으로 일어서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렇다 해도 나이든 사람들은 새해와 새봄 앞에서 근심이 없을 수 없다. 우리들 앞에 있는 어린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일이다. 그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항용 그렇지 못하다 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다.

지난해 나는 전국을 돌며 127회나 되는 문학 강연을 했다. 스스로도 그 횟수에 놀라면서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에 주목한다. 자기네들이 지쳐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고달프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이해자, 친구,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건 놀랍게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확실히 마음의 위로나 축복이 요구되는 시대다. 의식주나 자동차가 없어서 사람들은 외롭고 불행하지 않다. 마음이 고달프고 구슬퍼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불행한 마음을 갖는 세상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기도 하고 가능성인지도 한다.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자아와 정신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는 듯한 빛나는 개화의 순간을 느낀다. 사뭇 진저리를 치기도 한다. 그렇다. 지금이 우리 민족이 정신적으로 다시금 깨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것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교육을 맡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정신적으로 앞서고 깨인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행복이란 것도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행복감을 느꼈는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결코 어른들의 소유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결코 어른들의 소유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럴진대 아이들의 인생 또한 우리 어른들의 것이 아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럴진대 아이들의 인생 또한 우리 어른들의 것이 아니다. 이점을 부모들은 진작부터 알았어야 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미래의 것이고 젊고 어린 사람들, 저들의 것이다. 나는 또 전국을 돌며 현명한 중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말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어리지 않고 미성숙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의외로 깊고 아름다우며 옳을 때가 있고 완전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차의 가능성이고 희망이요 기쁨이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내가 가진 몇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는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남자의 세 가지 불

행 가운데 첫 번째를 소년고등과(少年高登科)라 했다. 그 것은 어린 나이에 1등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평생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늘상 1등만 가라고 종주먹을 댈 일이 아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아오는 것만을 기뻐할 일도 아니다. 새해가 되었고 머지않아 새봄이 또다시 이 땅에 벼락같이 찾아올 것이다. 새봄을 가장 정직하게 열렬하게 알려주는 건 역시 풀이나 나무들. 우리 자신도 한 그루 풀이나 나무로 새봄 앞에 서야 하고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도 새 풀이나 나무처럼 눈부신 태양 앞에 새롭게 태어났으면 진정 기도하며 소망한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시구로 친숙한 나타주 시인은 지난 43년간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이자,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이후 90여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발간해 온 문인이다. 그의 시 '풀꽃', '행복', '선물' 등은 초·중·고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으며, 현재는 공주문화원장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 조기에 재능 찾아 제대로 키우는 영재교육

“영재교육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맘껏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죠.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고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영재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영재학급을 운영해 온 김현조 부산 화명초 교사는 “영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숨겨진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부산 화명초는 지난해 주변 5개 학교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20시간의 체험학습을 포함한 총 98시간의 영재교육을 진행했다.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진행된 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은 카이스트 방문, 해양대학교에서 보트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과 수학 심화과정, 실험·관찰 위주의 과학수업, 인성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STEAM 교육을 받았다. 교과과정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 성적도 향상됐고 입학식에서 졸업식까지 100% 출석률을 보일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김 교사의 설명이다.

## 융합적 마인드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

영재교육은 특출 난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최상의 맞춤형 교

육을 통해 여러분을 넘나들 수 있는 융합적 마인드와 미래에 창의적 산출물을 실제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수학, 과학 중심에 치우쳐 있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보·예술분야 등으로 확대해 다양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도 매년 꾸준히 늘어 2005년 전국 초·중등 학생의 0.40%인 31,100명에서 2015년에는 1.81%인 110,053명까지 증가했다.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영재교육기관은 단위학교나 지역 공동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급’과 교육청 또는 대학부설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 그리고 ‘영재학교’이다. 2015년 기준 영재학급은 2,168개, 교육청 영재교육원 261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82개, 영재학교(과학과 포함) 27개 총 2,538개의 영재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그 중 영재학교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이지만,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학교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프로그램 형태의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데 차이가 있다. 특히, 지



01



**“영재교육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맘껏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죠.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고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영재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01 02 03 부산 화명초 영재학급 활동

난해 최초로 문을 연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에 이어 올해 인천에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교육과정에 일정 규모 이상을 과학기술, 예술, 인문학 등을 연계한 융합형 전문, 심화과정을 개설해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영재를 기르게 된다.

선발 방식은 다양하다. 대체로 교사, 전문가, 학부모 등 관찰 추천으로 이뤄지며, 이 외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영재성 검사를 통과한 후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 교사 관찰 · 추천 통한 대상자 선발 강화

한편,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1~2017)’을 진행 중인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영재교육의 문턱을 낮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영재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다문화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  
검사를 지원해 2012



02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내 담임이나 특정 교과목 교사가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장기간 관찰해 재능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교사 관찰·추천제 실시기관 비율을 2017년 70%까지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영재교육 국가표준’은 올해까지 시범적용한 후 내년에 전체 기관으로 보급·활용한다.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영재 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Gifted Education Database / <https://ged.kedi.re.kr>)는 2017년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로 본격화하기 위해 정보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 우수인재 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3



# 나의 진로에 한 발 성큼 다가서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시간에 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경찰이 되는 법 등을 재미있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직접 파출소에 가서 경찰차를 타고 순찰까지 했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면서 경찰이란 꿈을 키우게 됐어요.”(강원 사북중 학생)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분위기가 변화해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이 대부분의 교과에서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성취수준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이하’의 비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대전 가양중 교사)

2013~2015년 시범운영 결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컸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중학교에서 자기탐색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제는 단위학교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01

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조정을 통해 170시간 이상을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탐색 활동’,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인문사회, 탐구, 교양 등의 전문프로그램 학습 기회를 제

공하는 ‘주제선택 활동’,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예술·체육 활동’,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것, 잘



02



**2013~2015년 시범운영 결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커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중학교에서 자기탐색시간  
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01** 강원 사북중 자유학기 활동

**02** 전남 삼계중 자유학기 활동

**03 04** 경남 창덕중 진로체험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 수업에서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을 강화한다. 토론·협력 수업, 교과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자유학기 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진로체험은 학교 자원만으로는 학생 수요에 부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 11월 현재 7만 8,993개의 체험처와 16만 3,613개의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체험자원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농산

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로체험버스를 지난해 368교에서 올해 농어촌 전체학교인 1,028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학교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이밖에도 자유학기의 수업·평가 혁신, 자유학기 활동 등이 자유학기제로만 끝나지 않고 일반학기와 연계해 학교 전반, 교실수업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올해 80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란 대구동면중의 사례처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교과별 진로연계 수업을 일반학기까지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학기를 통해 한층 강화될 진로교육이 기대된다. ☞



03



04



# 진정한 실력 키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자신의 직업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하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살려 소신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곳, 바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이다.

## 취업과 진학, 순서는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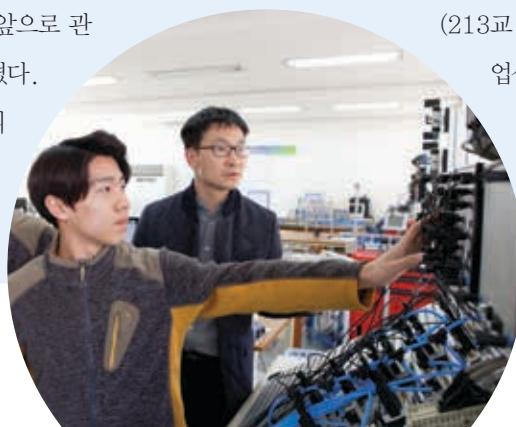
유닉스전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진(22) 씨. 중학교 때 진로 선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기계와 발명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계산공업고로 진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한 뒤 연구와 상품 개발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요즘 특성화고는 성적이 좋아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그는 “방학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반이 있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고,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현재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 등의 고학력자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높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박진 씨는 “기계설계나 의료 장비에 관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진학의 뜻도 내비쳤다.

인천항만공사 홍보선 에코누리

호 1등 항해사인 이승우(26) 씨. 마이스터고인 인천해사고를 졸업한 그는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특별전형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인문계고를 한 학기 다니던 중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학원만 다니며 공부하는 생활이 답답했다.”는 그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며 청소년들의 목적이 대학 자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각자의 진로를 모색해 일터를 찾아 취업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주목받고 있다.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 기관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정부의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학교에 산업체 우수강사를 파견해(128교, 700명) 산업 현장의 전문 기술을 전수하고 취업지원 멘토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관(213교, 483명)은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과 현장실습 지원 등을 담당하며 양질의 일자



리 매칭과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도 별이고 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고입전형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발전시키는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하며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015년 특성화고 취업률 46.6%).

### 능력 중심의 고졸 취업문화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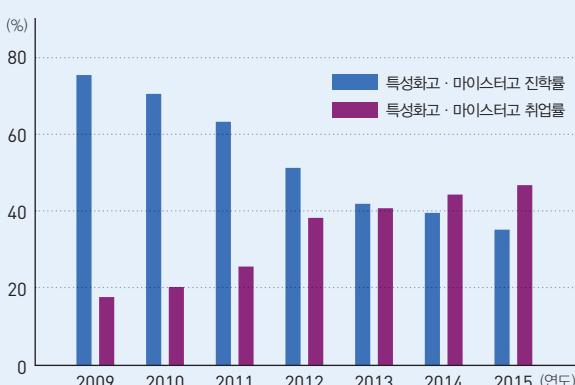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다양하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고졸 채용문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는데 그 예로 특성화고·マイ스터고 졸업(예정)자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삼성그룹과 계열사 10곳에서 2015년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롯데그룹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800명(고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을 모집했다. 또한 능력에 기초한 채용을 통해 고졸 채용을 넘어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늘고 있다. SPC는 고졸채용 예정자를 교육하는 'SPC 기업대학'을 설립하여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서울시립대와 협약을 맺고 2015년부터 매년 30명씩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 학력의 벽을 넘어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

- ▶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또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 ▶ **マイス터고** 공식 명칭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
- ▶ **특성화고·マイス터고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HIFIVE**  
홈페이지 <http://www.hifive.go.kr>  
모바일용 홈페이지 <http://m.hifive.go.kr>

〈그래프〉 특성화고·マイス터고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





# 진로정보, 여기 다 있네~

글\_ 채일동 명예기자(서울 혜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진로교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와 공교육진흥과는 ①진로상담 ②진로체험 ③자유학기제 진로교육프로그램 정책을 입안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행복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초등학교 진로탐색활동

그동안 초등학교에서의 진로탐색활동은 커리어넷([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의 아로주니어 플러스(진로탐색프로그램)를 통하여 수업시간이나 학생 개인 활동에서 자유롭게 실시되어 왔다.

### 〈표1〉 아로주니어 플러스 진로탐색 프로그램 종류 및 특성

검사명	실시시간	특성
직업 적성검사	20분	자신의 적성에 더욱 적합한 직업군을 알고자 하는 경우 도움
직업 흥미검사	15분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데 도움
직업 가치관검사	10분	직업과 관련된 욕구와 가치들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 성숙도검사	5분	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발달에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중학교 진로탐색활동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커리어넷([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에 탑재된 직업인 인터뷰와 직업세계 동영상 등 2,000편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고용직업 분류’를 통한 200개 이상의 직업군 멘토들이 학교 정규 수업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수업 내용은 산들바람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mentor.career.go.kr>)에서 다시 볼 수가 있다.

### 〈표2〉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구분	담당	소요시간	내용
수업 예약	담당교사	–	주제 및 시간 확정
본 수업	사전 학습	담당교사 20~30분	멘토 소개 및 멘토 직업 이해
	실시간 멘토링 정리	멘토 35~40분 담당교사 5분	주요 직무 내용, 장·단점, 에피소드 등 직업에 대한 질의/응답 멘토링 내용 정리
사후 활동	담당교사	20~30분	멘토 직업에 대한 활동지 작성



## ◆ 중·고등학생 진로교육\_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SCEP은 수업, 진로탐색,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전반에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스마트북과 창의적 진로개발, 연극을 통한 꿈 찾기와 Wi-Fi 창업과 진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CEP에 관한 자료는 커리어넷([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의 진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학부모 진로교육 정보\_ '맘에 쏙 진로' 앱

학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맘에 쏙 진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 중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부모와 자녀의 상담', '학교진로교육', '진로·진학 정보', '우리지역 체험정보' 등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전용 '맘에 쏙 진로' QR코드)



(애플 전용 '맘에 쏙 진로' QR코드)

※ 사용법 : 스마트폰에 QR 코드 인식 후 애플리케이션 설치

또한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진로교육 팟캐스트인 진로레시피([www.podbbang.com/ch/7445](http://www.podbbang.com/ch/7445))가 다음과 같이 무료로 운영 중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표3〉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활용 정보

요일 / 프로그램	출연	시간
(월) 진로 관점에서 본 직업, 진학, 입시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방송 (수) 자녀 진로고민 상담 / 직업을 잡(job)아라 (금) 진로교육 활동 자료 + 학과&직업	학부모, 학생(진로)교사, 진로전문가 등	20분~50분

## ◆ 영재아동 진로정보\_ 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아동을 둔 학부모 혹은 지도교사를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http://gifted.kedi.re.kr>)에서 E-book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재 진로상담 안내서(교사/학부모), 영재미래진로설계 안내서(영재 학생)를 얻을 수 있으며, 초·중등수업용 나의 미래지도 만들기, 영재학생을 위한 창업학습서 등의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 특수교육 진로정보\_ 잡에이블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혹은 지도교사를 위한 진로교육을 돋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정보시스템인 잡에이블([www.jobable.kr](http://www.jobable.kr))을 운영 중이다. 잡에이블에는 진학정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기관 현황, 취업지원, 진로 직업교육 우수사례 등이 담겨있으며, 전국의 특수교육 담당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를 위한 효율적인 진로포트폴리오 운영을 활용해볼 만하다. ☺

#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

교육부는 11월 3일 검정·인정제로 발행되었던 역사교과서를 개선하여 오랫동안 학계와 정계, 국민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는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서술되고, 어떻게 활용될지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Q1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많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따라 쓰여질 겁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듭니다. 교과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많은 전문가와 선생님들이 검토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우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요?

## 교과서 개발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2 자유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충실히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3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

- 고대 동북아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사·고대사 부분 강화
-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충실히 서술
-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기술
-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를 길러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비

## Q2 앞으로 교과서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개발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각 분야의 우수한 역사전문가들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에서 내용을 수시로 심의·검토하고 전문기관의 감수, 웹 전시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역할	교육부	교과서 개발 총괄 및 편찬심의회 등 운영 지원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육과정 개정('11년) 및 국정(한)국사 교과서 편찬('74년~'10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서 편찬 주관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각계 다양한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며,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심의 및 수정, 보완 요구
전문기관 감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연구 전문기관들이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해 감수
현장교사 검토		17개 시·도교육청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장 교사 검토
웹 전시		교과서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역사교과서 특별홈페이지에 공개



### Q3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우려는 없을까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친일과 독재 미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시정연설(‘15.10.27.)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전문기관 감수, 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 투명한 검증을 거쳐 개발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Q4 5·16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 다른 용어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역사과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기반을 둔 역사 용어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새로 발표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5·16 군사 정변’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Q5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실 수업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하여 폭넓고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수업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역사수업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특히, 외국의 역사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이 되는 ‘역사학’에 대한 연구 지원도 확대할 거예요.

### Q6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는데 역사 교과서가 새로 개발되면 수능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2013년 10

월에 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따라 한국사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상관없이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치러지게 되며,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됩니다.

2017년 3월에 보급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며, 학생들은 현재 8종의 교과서 대신 올바른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능 문항 역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

**절대평가(한국사)** :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40점 이상 모든 학생에게 1등급 부여

**상대평가** : 성취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수험생 중 상위 4%까지 1등급 부여

---

### Q7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연구 전문 기관들이 검토에 참여합니다. 또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새로 개발된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에 미리 공개할 거예요. ☺

---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홈페이지 ([www.moe.go.kr/history](http://www.moe.go.kr/history))’를 통해 최종 검토본이 2016년 11월 말경에 공개될 것입니다.

##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

# “학생 누구나 1스포츠 1예술 활동 즐기는 행복한 교육으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석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8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고 행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연말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계획은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학생 누구나 '1스포츠 1예술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및 수영실기교육 확대, 1학생 1악기 교육지원 강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원계획 안에 담았습니다.

### 지역협의체와 함께 체육 즐기는 문화 확산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학생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 최소 3종목 이상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종목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시범학교 200개 교를 신규지정하며, 기존 우수학교스포츠클럽 4,500팀 외에 300팀을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300팀 가운데 여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팀을 우선 지원합니다.



일반고 등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육·중점학급 운영을 확대하고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종목을 5종목 이상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전면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3~6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하고 시·도 공공수영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프로축구 구단 지도자들이 초등학교 축구 수업을 지원하였으며(180개교),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농구연맹 등 경기단체, 프로구단과도 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만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 밖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공동으로 학교예술교육 지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및 예술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연극 등 예술교육 지원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예술교육 다양화·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예술드림(Dream)학교’, ‘예술교육 거점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예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학교 특성화, 학교 및 학교급 간 연계 강화 등 학교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육성해 나갑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51교를 공모·지정하여 학교당 3~5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둘째, 희망하는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고 다양한 경험을

이번에 마련된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은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학생 누구나 ‘1스포츠 1예술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및 수영실기교육 확대, 1학생 1악기 교육지원 강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안과 밖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원계획 안에 담았습니다.

통해 음악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악기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학교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1,000 개교를 대상으로 악기지원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을 나서겠습니다. 올해 9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사업으로 바이올린 15,000여 대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올해 100개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학교예술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자체, 대학, 예술재단·단체, 미술관 등 예술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전문성 높고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전망합니다.

# 쏙/쏙/정/책/문/답



**Q** 이번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지원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A** 그동안 학교체육예술교육은 보통교육, 보편교육이라는 틀에 갇혀 심화·확산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학교체육예술교육 사업들이 지금까지 pre 단계의 기반 구축에 무게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post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체육예술교육을 지원할 지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예술 분야의 경우, 이번 바이올린 악기 15,000대 지원을 시작으로 차츰 악기의 수나 종류를 늘려 지역단위에서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Q**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성과는.

**A** 그동안 꾸준히 실시해온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등록률도 '13년도 54.8% 185,411팀에서 '14년도 65.2% 194,684팀으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13년도 1,250팀 16,203명에서 '14년도 1,573팀 19,764명으로 팔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질적인 효과가 상당하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긍정적인 자아 형성, 자기 효능감 제고 등에서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참조).

**Q**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생존수영'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A** 수요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스포츠종목으로 '수영'을 꼽았다. 수영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판단이기도 하다. 생존수영이란 기존의 영법 중심 수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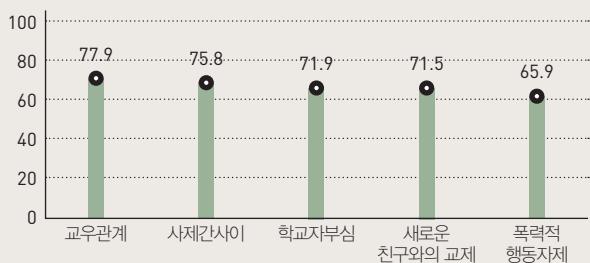
에서 탈피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수영교육이다. 즉 수중에서 위기 상황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한 생존수영에는 자기구조법(엎드려 떠있기, 누워 떠있기), 기본구조법(생활용품 및 주변사물을 활용한 구조법)을 기본 10시간 중 2시간 이상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영영법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소생법, 수상안전, 구조구난 훈련 등 생존능력 향상으로서의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초부터 인명구조 수준까지 총4단계의 학교수영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문화의 한 축으로 정착되는 분위기인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원계획은.

**A**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한편에선 체육예술교육이 '르네상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의 3% 정도는 스포츠클럽에 할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종목의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범학교 200개 교를 신규 지정하며, 기존 우수학교스포츠클럽 4,500팀 외에 300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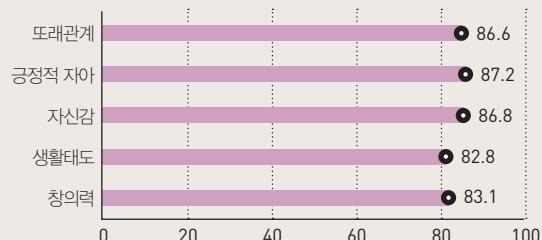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학교생활 긍정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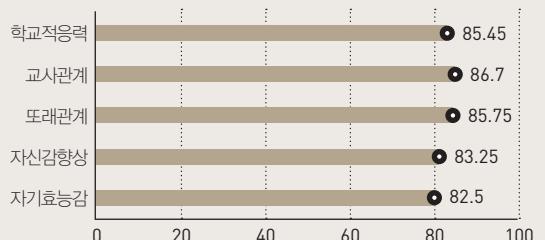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인성 긍정 반응



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 효과(학부모)



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 효과(학생)



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77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Q 예술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A '11년부터 문화예술소외지역 및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 '학생오케스트라 창단지원사업'('15년 500교)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뮤지컬(180교), 연극회·연극동아리(300교) 등으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오케스트라 사업의 효과성이 속속 입증되

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동창회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현재 자생적 오케스트라가 30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시드머니(seed money)를 보급하면,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자생적 노력을 이어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 Q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지원 계획이 충실히 실현되기 위한 요건이 있다면.

A 이번에 발표한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지원 계획이 학교현장에 인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

체육예술교육은 인간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복리(利)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꼭 챙겨야 할 국가사무이며 지방재정, 특별교부금, 국고 등 재원 주체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창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창의성은 지식교육으로만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인성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창의인재'에서 '인성창의'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김석권 과장(왼쪽 두번째)이 체육교육 담당 김승경 연구관(맨 왼쪽), 예술교육 담당 강민지 연구사(왼쪽 세번째)와 함께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중앙교육연수원

# 대구신청사 시대 개막… 교육현장 변화의 견인차로 우뚝



전국 교육관계 공무원의 에너지 충전소인 중앙교육연수원(원장 정일용, [www.neti.go.kr](http://www.neti.go.kr))이 대구혁신도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이후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온 중앙교육연수원은 2015년 10월 19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약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 현장에 정책 착근도도록 역량 강화

신청사는 지상4층 규모(부지면적 67,038m<sup>2</sup>, 건축면적 16,163m<sup>2</sup>)의 연수동, 숙소동을 비롯해 대강당(495명), 중강당(250명) 등 부대시설과 최첨단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연수생들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교육연수원은 각종 정책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연수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 기법을 적용하며 개별 연수과정 및 연수원 전체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체계를 수립해 교육의 품질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메타연수센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도 교육연수원 및 대학의 교육훈련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 관

### 주요 수상실적

- ★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2015)
-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2015)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우수 교육훈련기관(2011~2013)
- ★ 공무원교육훈련기간 대통령표창 수상(2010)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우수 교육훈련기관(2007~2008)

리와 컨설팅 지원 등을 이어가며 ‘연수원을 연수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중앙교육연수원은 이와 같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면서 매년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되는 등 우수 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일용 원장은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국정의 핵심가치 공유센터로, 교직원의 능력계발을 통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선도자 양성’을 비전으로 삼아 △교육정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연수 △핵심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수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불을 밝힌다. 이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일구어가고자 하는 희망의 움직임이다. ☺

### 표1. 2016년 중점 운영 방향

#### ① 기본에 충실한 공무원 양성

- 공직윤리 강화와 국가시책 관련 교과목 적극 편성
- 직급별 체계적인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②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 교육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연수 추진
-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 현업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 ③ 교육과정 운영 품질 제고

- 다양한 연수 기법 적용을 통한 연수 효과 증대
- 연수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 및 성과 관리 강화

#### ④ 메타 연수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 시·도 교육연수원 지원 및 정보공유 강화
- 대학 교육훈련 역량 제고 지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 강화

#### ⑤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내실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과정 개설
- 스마트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원격연수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⑥ 지역 사회와 연대 강화

- 대구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적 기여 확대
- 연수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사회 기여도 향상
- 지역 문화 체험 · 실습 활성화

### 표2. 주요 연수과정

구분	주요 연수과정	주요 연수대상
기본교육	교장(원장)자격연수자 국가교육정책 이해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국가교육정책 이해 교육부 국·과장, 5급, 7급, 9급 직무역량강화	유·초·중등 교장(교감)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교육부 국·과장, 신규자 교육부 소속기관 대학교직원
정책연수	정부3.0창의적인 MOE, 청렴 및 공직가치 함양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유학기제 정책이해, 통합사회 이해	
직무연수	홍보역량강화, 유아교육관리자 인성교육, 행복한학교관리자	
정보화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프레지와 파워포인트 활용 스마트워크 실무활용, 동영상 편집 및 포토샵 활용	
원격연수	정책이해, 공직가치, 직무역량, 개인역량 등 63개 과정	교원 및 일반직원

\* 2016년 연수계획 : 집합교육 59개 과정 10,224명 / 원격교육 63개 과정 143,000명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 코리아’ 알리는 국가 간 교육-인재 교류의 중심

교육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광호)이 지난 33년간의 서울 대학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12월 18일 개원식을 경기도 분당 신청사에서 개최하며 새로운 분당시대를 열었다. 이곳은 세계교육 흐름에 가장 민감하고 빨리 대응하면서 국가 간 교육 및 인재 교류를 담당하는 곳이다.

### GKS 사업으로 국제적 책무 수행

국립국제교육원은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교육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수행한다. GKS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교육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청년들을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사업이다.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타일러(Tyler Rash)와 샘 오취리(Samuel

Okyere) 씨도 GKS 사업의 수혜자다. 1967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6,5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2,700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이 국내 70여 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도 괄목할 만하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외국 유학생을 통해 세계로 확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돌파구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대학들은 2004년부터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함에 따라 2001년 1만여 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15년 역대 최고인원인 9만1,332명까지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를 초청하고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며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한다. 또한 국제화에 필요한 공교육 외국어



지원 사업과 다양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펴고 있다.

### 국내 우수학생 국비로 유학 지원

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국비유학과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을 눈여겨볼만 하다.

현재 매년 60여 명 정도 국비유학생을 선발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나 저소득계층 및 기술기능인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 100명에게는 일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대상

- 01 국립국제교육원 개원식 커팅식  
02 경기도 분당에 새 등지를 튼 국립국제교육원  
신청사



은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된다. 학교장 및 시·도교육감 추천, 내신성적,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쳐 최종 유학생을 선발한다  
<표1 참조>. 유학생에 선발되면 예비 교육과정 1년과 학부과정 4년을 포함

해 총5년 동안 유학생활에 필요한 기 본경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내 교원 해외 파견 확대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 분야 공 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수학, 과학, 한국어 등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3년 4개국 21명을 시작으로 2014년 6개국 20명, 2015년 8개국 20명의 교사를 파견, 현지 초·중등학교에 배치했다. 2016년에는 기존 ODA 국가뿐만 아니라 비 ODA 국가까지 확대해 총3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표2 참조>.

국립국제교육원은 매년 전국의 38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광호 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가로서 교육 분야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강점과 이를 통한 인재양성 및 국가발전의 노하우를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교육 교류의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②

**표1.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요강** (2015년도 기준)

- **내신**(30%), **필기시험**(70%), **면접시험**(가산점 부여)을 통하여 선발
- **필기시험 :** 수학B, 물리 I·II, 화학 I·II, 영어
- **면접시험 :** 한일공동 시행
- 대학 및 학과(전공) 배치는 수험생의 지망을 바탕으로 일본 대학별 수용 인원에 따라 최종배정
- 최종합격자 100명 외에 결원발생시 충원을 위한 예비후보자 20명 선발
- **전년도 기출문제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www.niied.go.kr](http://www.niied.go.kr)) 자료게시판 참고

**표2. 2016년 교원 해외 진출 사업 확대 계획**

- **파견인원 :** 장기 140명\*, 단기봉사 160명  
\* 최소 1년 단위로 파견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역할 :** 해당국 정규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정규교과 수업, 교육자문 등

구분	규모	기간	주요파견자	파견국
장기 파견	개도국에 교사 파견	연 90명	1~3년	현직교원, 예비교원 ODA국
	비 ODA국에 교사 파견	연 40명	1~3년	비 ODA국
	퇴직교직원 자문관 파견	연 10 명	1~5년	퇴직교원 ODA국
단기 교육 봉사	연 160 명	2개월 (방학)	교·사대생	ODA국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를 찾아서

## 2015 100대 교육과정 심사 소감



글\_ 김라경 2015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심사위원장(서울대곡초 교장)



200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회째 실시된 2015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이라는 주제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배움을 즐기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우수사례의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심사 선정기준에 의해 각 항목별 계획, 실천, 운영의 성과, 향후 계획, 일반화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교직원이 함께 토론하고 계획을 실천해 가는 학교,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돋는 즐거운 학교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과정 우수학교 100개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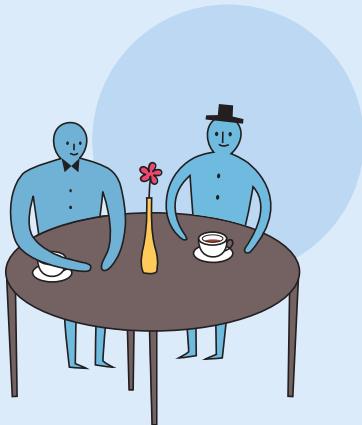
전국 초·중·고 1,263개교(초 670교, 중 358교, 고



235교)가 참가하여 시·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96개교를 대상으로 2차 심사(서류심사와 현장실사)와 3차 최종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7개교(특수학교 1개 포함) 등 100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현장실사(60%)가 서류심사(40%)보다 강화되어 보고서 내용의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 확인 및 우수

「2015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들은  
단위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사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이 현장에 어떻게 재구성되어 편성·운영·평가되고 있는지, 단위학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체계성을 갖고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초·중·고등학교들이 함께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 항목 배점이 40점으로 강화된 특색 프로그램 또한 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계성,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학교의 특색 및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체계성, 참신성, 적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에서 4일간의 합숙을 통해 이루어진 서류심사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간 심사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연수와 학교 급별 세부 심사기준 및 관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올해로 13년째 실시되고 있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2015 전국 100대 교육

과정 우수학교」들은 단위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학교 변화의 Key-Word인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 등이 매우 바람직해 보였다.

#### 각급 학교별 우수사례 눈길

특히 2016년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게 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우수학교마다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중심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였으며, 고등학교 또한 학교마다의 특성과 학교 유형에 적합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였다.

우수사례로 「2015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인 충남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에서는 학년군별 중심 주제(문화예술과의 첫 만남, 지속가능한 발전, 역사·전통과의 만남)를 편성하



여 지역 연계 융합형 체험교육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하였으며, 경북 포항이동중학교는 지구촌 시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Global ACE(Active, Creative, Expanded learning) 프로젝트 운영, 교과연계 융합수업 실시 등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공교육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남 녹동고등학교는 미래 핵심역량 계발 3성(인성·지성·창의성) 인증제를 실시하여 교과 재구성 및 다양한 수업방법과 수업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한강미디어고등학교는 '문화 예술·지역 사회와 연계한 창의·인성 학교'라는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특성화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 능서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너나들이' 인성 키움 프로그램, 서울 이태원초등학교의 SMART+로 세계시민을 기르는 행복교육, 인·사이드 아웃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전남 아산초등학교,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참 보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진보초등학교, 더불어 신나고 행복한 우리는 모두 자타공인 VIP라는 자타공인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소망초등학교 등이 특히 우수하였다.



**2015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어느 때보다도 단위학교의 관심이 높았다고 본다. 우수 학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중학교에서는 사회와 학교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고 행복동행 3Ste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안산 반월 중학교, 21세기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동행, 어울림, 희망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세종 아름중학교, '자기 생각 표현하기' 수업을 확대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용인중학교,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의 공교육형 모델학교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 천안동성중학교,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성취기준, 성취수준 개발을 통해 배움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북여자고등학교, 꿈과 행복을 만드는 3색(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과천 중앙고등학교 또한 우수한 학교들이었다.

#### 개정 교육과정 안착 밀거름 기대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에서는 100대 교육과정 심사 시 단위학교에서 보여주기 식에 치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보고서 작성기준 미 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시행정 지양을 강력히 제시하여 학교마다 행정 노력은 소비하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보고서 작성 기준을 어긴 칼라 보고서를 제출하여 탈락하게 된 학교가 있어서 매우 안

타까웠다.

2015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어느 때보다도 단위학교의 관심이 높았다고 본다. 우수 학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한 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하여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 참여형 수업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한 점, 평가시스템 또한 과정을 중시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매우 우수한 사례들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충실햄 안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❷



[표]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명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서울이태원초, 서울승인초	대청중, 신수중, 오륜중	경기고, 압구정고, 혜화여고, 구현고	한강미디어고
부산	양동초, 모산초	-	-	부산자동차고
대구	대구복명초, 대구용계초, 효동초	대구동부중, 교동중, 학산중	송현여고, 경북여고, 포산고	-
인천	인천송천초	구산중, 신현여중	송도고, 인천해원고	문화정보고
광주	산정초	산정중	-	-
대전	대전상지초	대전기양중, 대전남선중	대전전민고, 대전용산고	충남기계공고
울산	온양초	-	남목고	울산혜인학교
세종	참샘초	<b>아름중</b>	-	-
경기	능서초, 수내초, 용천초, 고창초	용인중, 반월중, 총현중, 당동중, 정남중, 늘푸른중	과천중앙고, 평택고, 조원고, 신장고	-
강원	금산초	-	-	-
충북	탄부초	양평중, 용성중	오송고, 매괴고	-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소망초, 규암초, 수정초, 목면초	천안동성중, 대천여중, 선도중, 천안백석중,	갈산고, 천안신당고	당진정보고
전북	한솔초, 순창초	-	-	-
전남	<b>아산초</b> , 관기초, 사창초, 옴천초, 광양기아초, 영암초	영광홍농중, 장성백암중	<b>녹동고</b> , 도초고	여수석유화학교
경북	<b>진보초</b> , 우곡초 포항제철동초, 왜관초, 금천초, 남산초	<b>포항이동중</b> , 영주여중	점촌고	-
경남	김해활천초, 명도초, 대병초	법수중	-	-
제주	-	제주사범대학부설중	-	-

\* 굵은 글씨체는 학교급별 상위 15% 우수교(초 6교, 중 5교, 일반고 3교, 특성화고 1교)임

##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 교육 현장에 큰 활력… 행복을 준 ‘자유학기제’

“나의 꿈을 찾게 해 준 자유학기제가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강민경 세종 조치원여중 학생)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면서 교사로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최상희 서울 잠실중 교사)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과 교사는 한결같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꿈과 끼를 탐색해 보는 자유학기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줬다.”는 것. 지난 12월 14일 The-K 서울 호텔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전국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열기로 가득했다.



###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서 전면 도입

2013년 42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유학기는 이듬해 811교, 지난해는 전국 중학교 80%에 달하는 2,551교로 확산되며 빠르게 교육현장에 안착되기 시작했다. 학교문화의 ‘새 틀’을 짜는 커다란 변화였고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큰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이 확대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학교생활 만족

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병식 대구 영남중 교사는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우수사례 발표에서 “학생일 때도, 교사가 된 후에도 경험한 적이 없던 변화 였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 했다.”며 “차츰 청소년기에 꼭 배우고 느껴야 할 것들을 자유학기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게 됐고, 지금은 모두가 만족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유학기 동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고 ‘무인도 체험 프로젝트’, ‘수단 어린이 돋기 프로젝트’, ‘대구 근·현대 역사골목 알리기’



02



03

01 '교실수업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표 세션에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된 '수업에 대한 대화' 모습

02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와 바람을 적은 '자유학기 제 행복나무'

03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유학기제 우수자료집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등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융합수업을 이끌어 냈다.

과학 전공인 최경철 경기 예봉중 교사는 자유학기를 맞는 1학년 학생들을 염두하고 3D프린터를 장만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3D프린터로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촉지도'를 만들고, 모형자동차를 만들어 레이싱도 펼쳤다.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팀 콘셉트에 맞는 자동차를 디자인한 뒤, 모델링과 3D프린터로 제작 과정을 거쳐 레이싱을 펼치는 장기 프로젝트 활동이었다.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공모전에 당선된 최 교사는 “학생이 프로젝트 활동에 흥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끼’가 나온다.”며 “아이들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자유학기를 보내 뿐듯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수업개선에 성공한 교사들은 한결같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곁에 동료를

믿고 의지하라.”고 조언했다.

####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 활발

자유학기 활동으로 진로체험 실천 우수사례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 동아리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강원 사북중은 다양한 지역 센터와 기관과 협력해 '다양job色' 진로탐색을 운영하고, 충북 옥천여중은 진로체험전산망 '꿈길'을 다각도로 활용해 특특히 효과를 거뒀다.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 기업, 사회단체, 대학생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대구 수성구청은 자체 내 의회, 언론사, 금융기관, 병원, 기업 등을 하나로 묶는 직업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IT 분야 진로체험을 위한 '꿈을 잇(IT)다' 프로젝트로 드림멘토링, 소프트웨어스쿨, 청소년기자단, 미디어페스티벌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에 대한 이해와 체험·실습을 제공하

는 아시아나 항공의 '색동나래교실', '색동창의STEAM교실'도 인기다.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多 가치 역사忠'은 충북대 재학생으로 이뤄진 역사교육 기부동아리로 현재 아이들 지도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다.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 향상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도 자유학기제가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자유학기 활동과 수업 개선 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 연구학교 80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진로멘토링 등 농어촌 지원 방안으로 진로체험 내실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교실수업 등 공모전에서 당선된 교사 13명과 자유학기제 경험을 토대로 수기와 UCC를 제작한 학생 2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사례 발표와 토의, 우수자료집 전시가 진행됐다. ☺

#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2016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버스 운행을 통한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합니다. 진로체험버스란 참여하는 민간기업, 대학 및 개인 멘토단 등이 각종 기자재와 장비, 진로관련 자료 등을 버스에싣고 농산어촌 학교로 찾아가 학과 체험과 특정 직업 관련 진로 멘토링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외에도 인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진로체험 버스를 타고 찾아가 센터별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이해와 창업 과정, 기업가정신 등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가까운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세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참여기관기업 : 삼성전자사회봉사단, 삼성디스플레이(충남), 현대차정몽구재단, MBC, 청주 MBC, 파루(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업)

대학 : 강원대 등 17개 대학(경북대 등 10개 대학은 2015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으로 참여) 및 LINC사업 참여대학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교육논단

# 교과용 도서 제도 변화와 질 관리 방안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 및 변화

교과용 도서 질 관리를 위한 심사역량 강화 방안

#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 및 변화

##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는 교육의 효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보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합한 명칭이다. 교과용 도서의 종류는 크게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정 도서**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서,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사용하는 학생 수가 적어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의 도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한다. 한 과목에 1종류의 교과서만 존재하게 되어,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이 사용하게 된다.

- **검정 도서** :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 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정 도서를 개발하게 한다.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된다.

- **인정 도서** : 국정 또는 검정 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개발된 도서 가운데 학교에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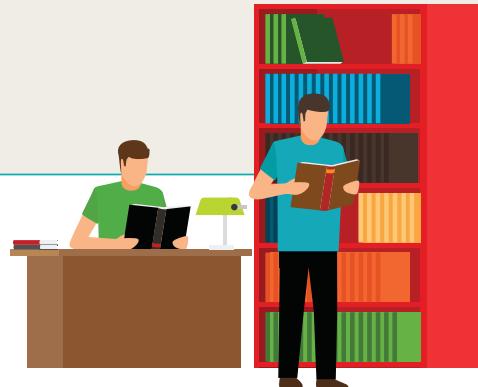
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를 말한다. 인정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교과서 정책은 1950년 12월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이 마련되고,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교과서 편찬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이루어져, 이 시기에 초·중등 국정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검·인정 교과서보다 국정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7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국정 및 검·인정 도서 체제에서 1종과 2종 도서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1종, 2종은 국정과 검·인정의 명칭 차이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1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함으로써 교과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1종, 2종의 명칭은 다시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90년대 중반에 와서 교과서 정책의 지방 분권화와 다양화의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검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0년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 내용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인정 도서로의 전



환이었다. 이에 따라 특목고 및 전문계고 전문 교과 145 종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수학,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 검정 도서 39종의 도서(총 184종)가 인정 도서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교과서 체제가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정 교과서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아울러 문제점을 드러냈다(서지영 외, 2013).

#### 교과서 발행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는 정책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여건이나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인정 심사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진행도 절차적으로 충실히 진행되었으며, 교과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검정에 비해 융통성 있는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필 의도의 반영이 어렵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인정 도서 체제는 국·검정 도서에 비해 개발 및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 심사 기준이 검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검정 교과서와의 차별성을 고려한 집필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과 심사를 위한 노력 면에서 기존의 교과서 또는 검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이다. 또한 심사의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교과서 출원 종수는 늘어났지만, 종수의 다양성이 실제 내용의 다양성과 학습 효과의 제고로 이어졌는지 실제적 증거가 드러나지 못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발행 제도의 주요 변화인 인정 교과서 확대 정책은 그 방향과 정책 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인정 심사 등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은 좀더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갖는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그 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과목인 수학, 영어 교과서의 엄격한 질 관리 등의 요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정 교과서 도입 시기 및 적용 교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국·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 이외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 될 것이다. 검정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교과용 도서 상시 수정 보완 체제 마련, e교과서 및 디지털 교과서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중점은 사교육비 경감을 통

한 행복 교육 실현, 핵심 역량 및 인성 교육 강화이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방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 및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 등 새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교과서 완결 학습이 가능한 실생활 중심의 친절한 교과서 개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교육부, 2015. 3)이다. 특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교과서의 학습량 과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

로 개발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서책형 교과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자료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균형 잡힌 집필 관점과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교과용 도서 집필 기준, 편

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인정 기준, 편수 자료가 개발되었다. 또 교과서 집필자 및 발행사 관계자 설명회 등을 통해 편찬 방향을 안내하여 좋은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신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대부분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되고 진행되기에, 좋은 교과서는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좋은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보람 있게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1).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관련 보도 자료  
교육부(2015. 3).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개발 기본 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0A).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보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진 워크숍 자료  
김국현, 정관순, 최병택, 박보람(201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 서지영, 임천빈, 김정호(2013). 「인정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2010).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문영주, 주형미, 윤지훈, 박지현, 김정호, 이동엽(2014).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형미, 가은아, 곽영순, 김명정, 문영주, 변희현, 안종욱, 윤현진, 이영아(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단장은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시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숙명여대 겸임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도덕교과교육학론, 도덕윤리과 교육학 개론, 한국교육 이념의 법철학적 해석, 생태여성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 교과용 도서 질 관리를 위한 심사역량 강화 방안

교과용 도서는 한 나라의 지적 수준과 지향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적 간접 자본이다.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당대 최고의 편집 디자인 실력을 발휘하여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 동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질 낮은 상품의 시장 진입은 막으려는 검·인정 제도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확하고 균형있게 담아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코자 한다. 그러나 만약 자율성이 내용의 질적 수준을 훼손시키는 목적 전치 현상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검·인정 도서의 질 관리

검·인정 도서 질 관리는 심의와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과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보고 판정하되, 적격본이라도 수정 명령을 하여 도서의 질 관리를 한다. 그럼 현 제도 하에서 심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인정 심의에는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 위원과 5인 이상의 심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은 주로 교사와 교수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 역량 강화는 심의 위원의 전문성과 검증 과정의 정밀성 및 심의 처분의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교과용 도서의 심의 위원

### 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위원 구성 체제를 개선하거나, 가능 인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검·인정 모두 심의 위원을 전국 단위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역 교육청은 지역 내 교사들이 교육과정·교과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해 주면, 심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인정제도 관리는 지역 교육청이 하지만, 사용 단위는 전국이므로 자원의 지역 한계를 벗어나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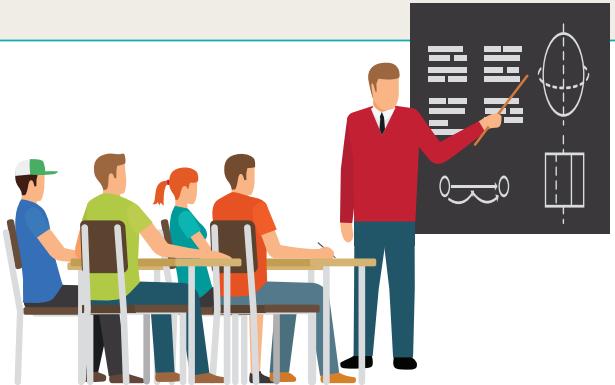
것이다.

## 둘째, 교과용 도서의 심의 과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심의 과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규정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심의 과정인 연구 위원이 기초 조사와 심의 위원의 본심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본심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다수가 협의하여 심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개 심의도 해 볼만한 일이다. 현재는 완성본이 공급될 때까지 그 내용을 학교나 사회가 알 수 없어서, 사후에 시비와 논쟁이 일어도 관리하기 어렵다. 이 방법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수 과목의 일부 쟁점 내용만이라도 심사 기간 동안 공개하고, 다중의 검토 의견을 위원회가 판정과 수정 지시에 참조하는 것이다. 규정의 '필요한 경우에 하는 전문 기관의 감수'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쟁점을 사전에 걸러내자고 하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이다. 물론 공개 심의제는 정밀한 운영 조건이 필요하지만, 인정제 확대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교과용 도서의 심의 처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현재 겸·인정 심의가 진입 장벽보다는 질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 앞으로는 심의 기준에 따라 도서의 질적 수준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좋은 상품을 보호하는 처분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격본도 문제 사안에 대한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종 판정해야 한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작자의 반론이 매우 합당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판정을 반드시 다시 하도록 관례화하면 된다. 도서 심의회는 사적인 영리성이나 이념 지향성이 없는 정당한 공적 기구인 만큼, 그 판단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공공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도서의 질적 수준 엄격하게 검증

이렇게 전문적인 위원이 외부 의견도 참조하면서 집중 심의를 하고, 결과를 엄정하게 판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의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보다도 저작자의 공적 책무성과 학교의 선정 타당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 정부는 그 기본 기준을 제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며물계 될 때, 우리는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얻을 수 있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 편찬과 심의를 앞두고, 진정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교육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김정호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인정도서 정책의 쟁점과 발전 전략, 인정도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은 무료대학 강좌가 주류가 된다. 인터넷, 위키피디아, 구글 검색, 무료 온라인 대학 과정 등에서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많은 미래학자가 예고한 ‘대학의 종말’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진단이다. 게다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장년,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대학의 생존이 보장되느냐 하는 반전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변화는 무료 온라인 대학 강좌인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가 주도할 것이다.

## 디지털이 몰고 온 변화와 나노학위

### 6개월~1년 과정의 ‘나노학위’ 주목

요즘 학생들은 교수나 교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식 공급체에 접근한다. 특히 머지 않은 미래에 구글 검색이 가능한 구글안경, IMB와 슈퍼컴퓨터, 구글 글로벌 브레인 등 다양한 지식을 두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와 순식간에 정보를 개인의 뇌로 전달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한 다프니 콜러 코세라 창업회장 등은 무료 온라인 대학 강좌인 ‘무크(MOOC)’를 2012년에 오픈했다. 현재는 코세라 외에도 유다시티 · 유데미 · 에드X 등이 나왔으며, 이를 온라인에 접속하여 4~12주에 걸쳐 무료 대학과정

을 듣고 약간의 돈, 즉 한화로 6만원을 지불하면 수료증도 받는다. 이러한 무료강좌는 이제 차츰 유료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대학 수강료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가장 비싼 강좌는 ‘나노학위(NanoDegree)’를 주는 유다시티(Udacity)로, 한 달에 20만~25만 원을 낸다. 여기서 나노학위는 앱 개발 등 특수한 과목을 작은 학위로 쪼개서 그것을 이수한 학생에게 주는 학위이다.

나노학위 및 마이크로칼리지는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유는 바로 곧장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유다시티는 기업과 손을 잡고, 이 과정을 듣

지 않으면 원서를 낼 수 없는 과정을 내놓았다. 값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이며 6개월에서 1년 과정이다. 가장 먼저 AT&T라는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다시티의 과정을 들어야만 취업의 자격이 주어지도 록 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상당수 대학에서 무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계속 진화하는 정보화 사회는 무크의 발전도 함께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무크는 무료가 기본이므로 빈부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학생 누구에게나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대학입시 중압감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무크 중 가장 앞서 가는 코세라는 교육과정을 다른 나라 언어로도 제공하는 ‘국제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누군가가 코세라에 접속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백그라운



드 등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바탕화면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자동으로 바꿔서 보여준다. 코세라 접속을 하자마자 접속자의 언어로 바탕화면을 바꾸고, 그 언어로 올려진 강좌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영어로 올려진 강좌에 자막을 깔아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접속자의 모국어로 자막이 달린 세계 최고의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어로 세계적인 대학의 강의를 바로 들을 수 있고, 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의 고3 학생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대학이 한층 긴장해야할 이유다.



그러나 무크가 성장하면서 대학도 한층 진화할 것이다. 대학은 어린 학생을 위한 지식만 담지 않고 생활과 미래변화를 담을 것이며,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은퇴한 사람은 새로운 흥미거리나 재미있는 일거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삶의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학이 평생 배우고 가르치면서 빈부격차가 줄고 경쟁사회가 아닌 협업사회를 이루는 ‘중심’이 될지 주목된다.

### ‘온라인 유학’ 시대 열다

대학의 개방형 온라인 강의는 2002년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오픈코스웨어(OCW)로 시작됐다. 일종의 ‘지식 기부’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수업 자료와 강의 동영상 2,200개를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최근의 MOOC는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한 교육 플랫폼이다. 유명 석학들의 강의 자료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도 하고 교수는 과제와 시험문제도 내고 학점도 주기 시작했다. 일정 학비만으로 강의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취득한 하버드대·스탠퍼드대·프린스턴대 등 유명 대학 수료증이 취업이나 진학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급기야 조지아공대는 명문대 최초

로 MOOC를 통해 컴퓨터학과 정규 석사과정을 올해 1월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6,000달러의 수업료를 내고 명문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명한 3대 MOOC 플랫폼은 코세라·에덱스·유다시티 등 세 곳이다. 코세라는 2012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앤드루 웅과 대프니 콜러가 공동 창업한 영리기업이다. 스탠퍼드대·예일대·시카고대·도쿄·로잔공대·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개설 과목은 450여 개로 공학·인문학·약학·사회과학·수학 등 대학 내 거의 모든 과목이 개설돼 있다. 수강생은 500만 명에 달해 현재 세계 최대 MOOC 플랫폼이다. 에덱스는 MIT와 하버드대가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세운 비영리기관으로 MIT·하버드대·버클리대·코넬대·베이징대·서울대 등 2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유다시티는 파트너 대학 없이 스탠퍼드대 출신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사이트로 컴퓨터공학 중심의 25개 과목이 개설 중이다. 스탠퍼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유명 대학은 물론이고 일본 도쿄대, 한국 KAIST 등이 참가하며 MOOC 대표 서비스로 뛰어 올랐다. ☞

# 추천서라 생각하고 학생부 작성하자

기말고사가 끝난 후 학기말은 학생부 기록과 오류정정으로 교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특히, 대입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있어서 교사들은 학생부 작성에 더욱더 집중력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원고에서는 교사들의 학생부 기록에서부터 오류정정 까지 학생부 작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학생부 기록에서 오류정정까지

학생부 3번 출결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결석(질병·무단결석)과 기타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에 결석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타당한 사유를 입력해 주어야만 대학 평가자들이 불성실한 학생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4번 수상경력에서는 교내상을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입력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이다. 6번 진로희망사항에서는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7번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나 ‘종합의견’ 등에 그 이유를 적어주는 것이 좋다. 진로가 바뀐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진로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사 – 외과의사 – 흉부외과의사’처럼 기술되면 진로활동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016학년도부터는 ‘희망사유’ 항목 입력이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대학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생부 항목은 창의적체험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 만큼 이 항목들은 학기말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수업 중에 일어난 학생들의 활동을 평상시에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활동의 경우 학교행사 등이 주로 기록되는데 학생이 이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통으로 입력되는 내용

학생부만 읽고도 충분이 이 학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총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 만큼 교사가 쓴 학생부 한 줄 한 줄이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작성해야 한다.

과는 별도로 특기사항을 입력해주면 좋다. 봉사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개인봉사활동이 중요하고 이 중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도 입력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은 특기사항이 500자로 줄었기 때문에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특기사항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자율동아리를 여러 개 한 학생은 특기사항에 내용이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활동도 동아리 특기사항에 입력되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핵심 동아리를 선별해서 입력할 필요가 있다.

####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 중 일어난 일련의 활동들을 교사가 평상시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기록보다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과담당 교사가 입학사정관에게 학생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이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도 입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항목은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항목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입력양식이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수행평가, 발표 활동’ 등 기입양식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9번 독서활동상황은 여러 분야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수업시간에 생긴 지적호기심이 다양한 독서이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할 때는 같은 내용들을 반복 기술하기보다는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1년간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학생의 성장 내용을 기록해주어야 한다. 또한, 앞선 항목들에서 누락된 내용을 기재하고 중요한 활동에는 의미를 부여해 강조해 주는 최종적인 정리역할을 해주면 좋다.

요컨대, 학생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기 보다는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만 읽고도 충분이 이 학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총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 만큼 교사가 쓴 학생부 한 줄 한 줄이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담임교사는 수업과 상담 등 교원 고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런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 학생부를 12월에 한꺼번에 기록하는 연례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학생부 기록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

#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는 마미캅

날씨가 뜹시 추워지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학교는 잠시 숨을 돌리게 되지만 더욱 바빠지는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학원과 독서실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학부모 폴리스'가 결성되어 유흥 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일명 '마미캅'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도움을 주고 학교 폭력이



나 유괴, 성추행 등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어머니들이 직접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 유흥거리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근절을

실천하는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학교 폭력이나 성추행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미캅이 청소년들의 방학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청소년들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_김영아 / 명예기자(순천향대 대학생)

## 안산공고 진로역량강화캠프

12월 17일 안산  
공업고등학교(경기  
도 안산시)에서는 취  
업을 희망하는 1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역량강화캠프가 이루어졌다. 이번 진로역량강화 캠프는 안산공업고등학교 주최, 베르아델인재개발원/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역량강화캠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설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선팹업 후 진학'에 대하여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진로역량강화캠프에서는 전공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를 가졌다.

글\_ 양지훈 / 명예기자(안산공고 교사)

## 함께해요! 사랑의 연탄 나눔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 여러 봉사단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도 함께 시작된다. 그 중 독거어르신 돌봄 활동과 무연고자 장례식 및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나눔코리아와 함께한 연탄 나눔 소식을 전한다.

나눔코리아의 연탄 나눔 봉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1월까지 총 12회 이상에 걸쳐 매주 실시되며, 첫 연탄 나눔이 11월 21일 강남 구룡마을에서 있었고 지금도 계속 봉사 신청을 받고 있다. 나눔코리아 정식대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체, 동아리 신청도 가능하며 일반인도 1인당 3만원의 연탄구입 비용을



후원하면 봉사가 가능하다.

12월 초 서울 강북의 상원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선생님들도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였는데 상계동 소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12월 중순에는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에서 또 한 번의 연탄 나눔 봉사

가 있었는데, 이날 참여한 50여 명의 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여 동안 총 2천 장의 연탄을 날랐다.

추운 겨울 훈훈한 연탄 나눔 현장에 온 가족이 함께 또는 사제가 동행하여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_ 임라미 / 명예기자(서울난향초 교사)

##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진로교육학회(회장 서우석) 추계학술대회가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서우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로교육법을 발의한 김세연 의원과 그동안 노력한 진로교육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조 강연에는 이무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로 '평생학습사회에서 진로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유관단체들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강연에서는 '초·중·고 학교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주교대 조봉환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고 "진로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요소를 반영해 교사 연수를 제공해야 하며, 연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살면서 평생의 진로교육이라는 말은 요즘 살아가면서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주제로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글\_ 백희 / 명예기자(학부모)

## 차이 좁히고 재미 더하는 행복한 배움터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당진 정미초등학교는 전교생 32명으로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12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어머니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다문화를 이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을 추출해 교과시간에 연계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교육주간을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지역인사 초빙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 체험활동으로 '엄마 고향 베트남'에 대한 문화와 전통 의상, 음식, 노래 등을 베트남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엄마 고향에 대해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 고향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말과 글이 서툴러 학부모들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체험활동을 온양민속박물관과 세계 꽃 식물원 등에 정기적 가족나들이를 비롯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다양민국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해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권교육, 다문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다문화학생동아리와 예술동아리를 조직해 오카리나, 탁구, 액션리닝, 우쿨렐레 등을 함께 배우며 학교 내 발표회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진로체험학습으로 로보파크, 아인스월드, 당진시청, 당진화력홍보관 견학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인근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두리 마을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 베트남어, 중국어 노래 부르기 등 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

## 로봇을 움직이다!



'로봇'을 움직이게 조종하는 것. 어렸을 때 제 꿈이었습니다. '로봇' 자체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 아이들은 로봇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로봇을 앞, 뒤, 옆으로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말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로봇에서 빛이나기도 하는 등 로봇을 자연스럽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로봇을 가지고 배우는 수업이 있다고 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연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매주 화요일 5, 6교시에 로봇과 함께 놉니다. 바로 '로봇 코딩 수

습니다.

다문화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그 결과로 작년에는 다문화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교육감 학교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학교의 이점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놀기, 텃밭 가꾸기, 논두렁 밭두렁 산책하기, 쌀 찐빵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단에 가득 피어난 토끼풀밭은 학생들의 우정반지, 영광의 화환 만들기로 동화 속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텃밭과 덩굴식물 터널은 체험과 관찰의 장소는 물론 자연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_ 김종우 / 명예기자(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무관)

## 『농인, 우리들의 이정표』를 출간하다!

업'을 하는 것입니다. 로봇의 이름은 '아띠'입니다. 귀여운 이름이죠?

'로봇 코딩 수업'은 로봇과 연결된 프로그램에 명령문을 만들거나 배열하여 로봇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게 하는 수업입니다. 즉, 정해진 명령문을 순서를 바꾸어 논리적으로 만드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이 로봇이기에 '로봇 코딩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로봇 코딩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으로 시행하기에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스마트 기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협력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로봇 코딩 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이 '로봇 코딩 교육'을 접했으면 합니다.

글\_ 손균욱 / 명예기자(세종연동초 교사)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서울농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글을 모아 만든 『농인, 우리들의 이정표』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본 활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를 받아 청각장애를 가진 본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농학교 글쓰기 프로젝트인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그 첫 시작이다.

4월,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고등부 1학년 1명(김민주), 고등부 2학년 3명(박지영, 이준하, 최정화)의 학생이 희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인터넷 네이버에 '서울농학교 글쓰기 프로젝트'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매주 자신의 독후감, 생활글, 시, 소설, 일기, 만화, 웹툰 등 자신의 작품을 올리면 카페에 올라온 학생들의 작품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두 분 선생님(전용훈, 권미성 선생님)이 읽어 보시고 맞춤법 수정과 내용전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의견 등을 게시하면 학생들은 이를 보고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한편 한편의 글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수정된 글을 모아 11월 『농인, 우리들의 이정표』라는 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글\_ 한명숙 / 명예기자(수원서광학교 교감)

## 평생교육을 학교에서도 한답니다

서울상계초등학교(교장 김상우)에서는 2015년 12월 2일 방과후교실에서 지역사회와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2학기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수료생 1학기 10명, 2학기 14명 모두 26명의 수료생 한 분 한 분 수료증을 수여하셨습니다.

1학기 수강생 분들이 거의 대부분 2학기에도 수강 신청을 하셔서 1년 동안 토탈공예반을 수업을 받으셨는데 매우 수요일 2시



간 반씩 계속 이어서 활동하시며 전문적인 솜씨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에 스스로들 많이 대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2학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분야인 드라이플라워를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작품들을 여러 가지 만드셨는데 예쁜 장식용 꽃다발과 장식용 꽃등 다양한 작품으로 교실과 집안에 향기가 퍼지게 하였습니다. ☺

글\_ 김경민 / 명예기자(서울상계초 교사)

## 창작동화책『친구야, 사랑해』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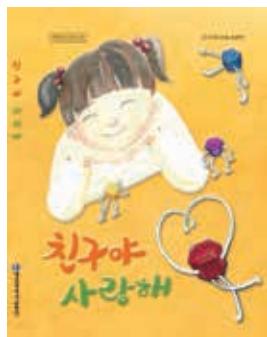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세 개의 작은 실천(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으로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친구사랑 3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친구야, 사랑해』창작동화책을 발간·보급하였다.

『친구야, 사랑해』창작동화책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로 동화를 사랑하는 일선 교사들의 글과 그림으로 제작하고,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소소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발간된 동화책은 초등학

교 3~4학년 학급당 1권씩 배부되었다.

이 동화책에는 놀림을 친구의 칭찬으로 극복한 이지영 교사의 「나는 오대장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표현한 이봉희 교사의 「군대놀이」, 아이들이 놀 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따뜻하게 표현한 김자숙 교사의 「공기놀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표현한 이현미 교사의 「그래, 이거면 충분해!」 네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삽화는 송소영 교사와 하혜은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실감나고 친근한 그림으로 동화의 이해를 더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친구야, 사랑해』창작동화책은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호주 인턴십 수료식 ‘성황’

경남교육청은 경남지역 특성화고 28명, 일반고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 호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해외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을 가진 학생들은 호주 국립기술대학(SI TAFE)과 전공별 13개 업체(Sushi Bar 등)에서 현장실습 등 다양한 해외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인턴십은 특성화고 12주, 일반고 5주 동안 영어교육, 직무연수,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은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신기술을 체험하고 기능인으로서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호주 인턴십은 세계적인 인재 육



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컨비자 취득을 위해 호주 정부에서 알선하는 현지 공장 및 농장에서 취업 후 세컨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해외인턴십에 파견된 특성화고 28명 전원은 세컨비자 취득 후 현재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에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이 확정된 인원은 27명으로 97%에 육박했다.

한편 일반고 11명 학생은 지난달 18일 현장적응 교육이 끝나고 전공별로 현장 취업 및 세컨비자 취득, 전공 TAFE 전공 심화 과정 연수에 참여했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해외인턴십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와 현지 교육기관과 취업훈련기관의 연계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기능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달산초 '선진 스포츠 체험' 주목

"TV에서만 보다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타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무섭다가 나중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체육수업 시간이 참! 좋아요." 부산 달산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승마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한 학생이 들뜬 목소리로 한 말이다.



지난 2014년 3월 개교한 부산 달산초등학교는 특색있는 '선진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달산초 '선진 스포츠 체험' 활동은 지복수 교장이 학교 학생들 다수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줄 방안으로 지역의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주고자 마련하였다. 그 첫 단계로 지난 3월 기장군청과 MOU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기장군이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전문 축구·농구 경기장, 공원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3학년에서 6학년 체육수업을 재구성하여 주 2회 운영되는 체육전담교사 수업과 월 1회 4시간 운영되는 '선진 스포츠 체험' 시간으로 나누었다. 체육전담교사 수업에는 학교에서 기초체력을 기르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 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실천하여 내면화하도록 하였으며, '선진 스포츠 체험' 시간은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선진 스포츠 체험 활동으로 즐거운 배움과 함께 올바른 스포츠 정신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달산초등학교 '선진 스포츠 체험'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가 알려지면서 인근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는 움직임은 지역사회 학교끼리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육공동체의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이주희망자를 위한 통합안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시 이주희망자를 위한 교육정보 안내서인 「세종교육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7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

후 40개월 연속 인구 순 이동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4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고시함에 따라 내년에도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교육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여 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돋기 위해 통합안내서 발간을 기획했다.

총 124쪽으로 구성된 이 안내서는 전·입학절차, 통학구역지정, 배정업무 등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안들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만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제작됐다.

또한 전·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의 관심사인 학교별 교복 정보와 방과후 활동 및 동아리 현황 등도 안내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앞으로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통합안내서를 이전 대상 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에 배포하고 전·입학 상담 시 활용하도록 전입학원스톱지원센터와 학교에도 보급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www.sje.go.kr](http://www.sje.go.kr))에도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 여행과 글로벌교육페스티벌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도에 자리한 대구교육연수원 글로벌스테이션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시내 초·중등학생, 학부모,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하는 글로벌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세계의 소외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배우는 ‘공정 여행과 글로벌 문화체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글로벌교육페스티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당일 글로벌스테이션을 방문한 이는 누구나 현장접수를 통해 ‘열린 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비행기 수속 및 탑승 체험, 영어도서관 자유체험, 동서양 여러 나라 의상체험 등 모두 7개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운영되었으며, 5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하였다.

몇몇 체험과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별로 15명씩 시민의 사전신청을 받아 원어민과 함께 여행을 주제로 기초회화를 배우는 ‘기초 여행회화 강좌 및 여행 작가 특강’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은 이미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글로벌교육페스티벌 당일에는 초등학생 대상 3개 프로그램과 중학생 대상 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 회화 여행 프로그램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소외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One day 지구촌 착한 여행’, 13개의 나라별 부스를 돌아보며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



는 ‘지구촌 부스 한마당’, 세계문화유산을 캠프파이어 활동을 하며 탐험하는 ‘글로벌 문화유산 탐험’ 등이 있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지구촌 소외 지역의 아동 권리 보호와 글로벌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NGO와 함께 하는 지구촌 한 울타리’, 책을

읽고 토론시간을 가지는 ‘주니어 인문학 스테이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되었다.

시민 이동이 많은 지하철 범어역에 위치한 글로벌스테이션의 특징을 살려 시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소통! 열린 무대’ 공연도 인기가 높았다. 글로벌스테

이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준 자원봉사단체의 공연과 더불어 영어뮤지컬 방과후 프로그램 공연, 원어민 공연 등 10팀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번 글로벌교육페스티벌은 범어역 지하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였다. 대경상록 오카리나 연주단 25명,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단 24명, 범어 지구대 경찰관 등이 안전 순찰 지원 활동을 꼼꼼히 해 주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쾌적하며 무엇보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재미가 있어 참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대구교육연수원에서는 올해 진행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게 글로벌교육페스티벌을 운영 할 계획이다.

## 제1회 울산 학생저자 책 축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5일 울산과학관 빅뱅홀과 코스모스갤러리에서 제1회 ‘울산 학생저자 책 축제’를 개최하였다.

‘울산, 책 쓰기로 꿈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책 축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15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책을 품는 행복한’ 교육 중에서,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사업 결과물을 책 축제로 승화시킨 것으로, 학생들의 연간 활동 결과물인 책 전시를 비롯하여 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였다.

이번 책 축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2015년 초·중·고 학생 책 쓰기 동아리의 활동 결과물인 책 377편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울산외고 학생 13명의 1인1책 쓰기 도전으로 나타난 11권의 책

과, 삼일여고 학생들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별 헤는 밤’ 등 울산 학생들의 창의 성과 기발함, 다양함을 377권의 책을 통해 느껴볼 수 있었으며, 책쓰기 동아리 30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학생 글쓰기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초등 독서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와 중등 의 책쓰기동아리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으며, 독서 관련 시상뿐만 아니라 외화번역가이자 작가인 이미도 작가의 초청 강연 까지 열렸다. 울산산업고 식품기공학과 학생들의 북카페 운영과, 책을 매개로 한 매직큐브 만들기, 버던 제작,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되었다.

지난 11월 13일에 열린 전국 책 축제에



서도 울산의 책 전시 부스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 많은 책과 전시물들로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울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책 축제에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책 축제 행사를 통해 한 해 책 쓰기 활동과 독서 활동을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발간 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천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 프로젝트

제천여자고등학교(교장 이철수)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제천 시내 일대에서 조형물 제작 및 벽화 그리기 활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각한 장소를 선정하여 벽화를 그리거나 투기 금지 표지 및 거울을 설치하며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청과 연계하여 장소를 물색하고 주



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며 준비했다.

이후 선정 장소를 찾아 주변 쓰레기와 필요 없는 화단을 치웠으며 무더운 날씨 등 어려운 여건과 부딪혔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벽화 선정 장소를 찾으며 조형물과 벽화를 완성해나갔다.

제천여고 이철수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변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환경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 학교부적응 아이들 태우고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 성향에 따라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이하 청바지) 센터장은 “학교부적응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부적응이 아니다.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교육적 상황이 아이들을 ‘학교부적응’자로 내몰고 있다. 입시교육에만 길들여진 학생들은 분노조절도 잘 안 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른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부적응 형태로 나타나



미술치유-티셔츠 만들기



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는 거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다. 청바지는 이 아이들이 ‘사회적’ ‘협동적’ 존재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로 지었다.

청바지는 2013년 대전시교육청과 함께한 ‘나를 돌아보는 힐링열차’로 출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초창기에는 코레일(열차)과 산림청(휴양림)에서 ‘교육기부’ 형태로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공기업 ‘융합형’ 프로그램으

로 정착하였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1박2일이나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음악·미술 치유, 숲 치유 등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이다. 매번 참가 학생들 성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 자존감 높이는 체험형 프로그램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위기학생들이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에 오른다. 아이들은 기차여행을 통해 처음 만



숲 치유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는 2013년 대전시교육청과 함께한 '나를 돌아보는 힐링열차'로 출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초창기에는 코레일(열차)과 산림청(휴양림)에서 '교육기부' 형태로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공기업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다.



나는 친구와 친구 맷기를 하고 멘토 와의 대회를 통해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에서 공존하는 생물처럼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어진 재료와 자연을 활용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숲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나 자연물을 이용해 놀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소통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집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함께 산을 오르며 스스로 인내하는 것을 경험하고 정상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며 성취감도 느낀다.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숲에서 마음껏 놀 뿐 아니라, 숲에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고 밤에는 통나무집에서 함께 잠을 잔다. 물론 식사도 또래 아이들과 역할을 나눠 함께 만들어 먹는다. 숲 치유 효과는 매우 커서 자연스럽게 숲과 교류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휴양림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고 배우도록 유도함으로써 '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짹트고 배려와 소통, 공감 등 관계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안 하는데, 직접 입고 다닐 티셔츠를 디자인해 보라고 하면 2시간 동안 집중도 잘하고 스스로 대견해 하지요. 완성된 작품을 들고 패션 쇼도 하고 자신의 옷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지고, 평소엔 거칠게 행동하고 싸움을 하던 아이들도 발표할 때는 수줍어해



요. 겉으로만 센 척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마음이 여리다는 게 느껴집니다."

청바지는 그동안 경북 청도 운문산, 무주 덕유산, 경기도 산음, 전남 방장산, 남해편백 휴양림 등 산림교육 시설이 좋고, 철도교통 접근성이 좋은 자연휴양림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희망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달린다.

문의 :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www.bluebaji.kr](http://www.bluebaji.kr)) 042-823-7949



## 아이와 갈등 줄이는 ‘내 아이 스마트폰’ 관리법

**A**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 대체 누가 이런 걸 만 들어서 힘들게 하는 건지 자녀와 힘겨루기를 해본 부모라면 당장 스마트폰을 부숴버릴지, 아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주지 말고 원시인으로 남겨둘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영유아 부모에게 2세 이전에는 미디어 화면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화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손끝으로 터치만 하면 튀어나오는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뇌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 대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들을 미디어가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내 아이, 스마트폰 중독인가요?

치료자들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관련 강연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인가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몇 시간을 하든 스마트폰 사용 욕구를 통제할 능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결책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자제하는 능력’을 키우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모들이 해야 할 첫 걸음은 부모와 자녀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가족관계의 회복 및 강화’다. 가족 간에

적대적이지 않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을 때 자녀들이 거부감 없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을 때,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클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절과 비난을 받는 느낌이 클 때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반발심과 갈등만 증폭되고 오히려 부모 몰래 스마트폰에 더욱 몰입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해볼 수 있다.

### 가정에서 스마트폰 관리 노하우

- 인터넷 중독이 우려될 때 컴퓨터를



**대화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손끝으로 터치만 하면 뒤어나오는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뇌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 대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들을 미디어가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배치하듯이 온 가족의 스마트폰 거치대를 거실에 두고 제한된 시간에만 각자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급적 공개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방은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이지, 고립된 채로 무한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잠자는 방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면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게 할 것을 권한다. 또한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 중에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한다.

■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고 직후 1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정 사용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막연히 '하루 2시간'보다 시간 통제력을 갖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일지를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 취미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가장 권장하는 항목은 역시 운동이다. 몸을 다채롭게 움직이고 산소 공급이 원활한 활동을 할수록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종목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일정을 넣을 것을 추천 한다. 또 악기를 배우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 것도 좋다. 특히 아버지가 놀이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는 정서적인 안정과 상호 신뢰를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 채팅을 할 때는 육을 하거나, 남의 흥을 보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예절과 관습을 무시한 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

고 무자비하게 욕설을 하거나 소위 '페드립'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로 실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간의 상호관계가 중요함을 교육을 통해 아이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흔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엄마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잘못하는 행동에는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스마트폰 관리에 나서면 훨씬 순조롭게 자녀와 갈등 없이 진행되리라 본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일일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 놀아줄 수 있다면 아이와 갈등 없이 스마트폰 관리는 저절로 되리라고 본다. ☺

#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겨울방학 활용 노하우

겨울방학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 학기 생활을 잘 비우고, 잘 채울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 활용 노하우를 현장 명예기자들이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와 학원 두 곳에서 학업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 학교가 방학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학원도 방학을 허락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간 외우고 풀고 이해해야 했던 것들로 꽉 찬 아이들의 머릿속을 잠시만 쉬게 해주자고요~ 대신 딱 방학기간 동안만 아이들이 평소에 소망했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꽉 찬 머리는 다음 학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분명!!

허경하(40) / 교사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사상이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자연 및 농촌체험과 예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한다면, 아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혜경(40) / 학부모

겨울방학에는 몸이 움츠러들기 쉬우니까 오히려 외부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내 클라이밍이나 스케이트 타기, 다양한 겨울 축제에 참여하기 등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부족한 공부를 해 보세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매년 해맞이를 기하는데 바다에서 떠 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아쉬움과 뿌듯함을 되새깁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하고 해의 에너지를 받아 1년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답니다.

김기성(48) / 학부모

저는 현재 고3입니다. 수능이 끝난 저는 수험생활로 하지 못했던 여리 가지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대학 생활을 위한 준비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컴퓨터 오피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겨울방학인 만큼 뜻깊게 보내기 위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지를 정해 정보를 찾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 뒷바라지에 애써 주신 어머니를 위해 나이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로 올 겨울 방학을 채우려 합니다.

양혜영(19) / 고등학생



평소 일하느라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겨울방학에는 우리 아이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가져보고자 해요.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이 발달한 요즘이지만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말편지를 같이 적어서 우편을 통해 전달해 보고, 가족들끼리 자그마한 공연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전은정(32) / 유치원 교사

야호! 겨울방학이 되면 전 가족들과 겨울캠프를 가요. 부산에서는 눈 구경이 힘들어 속상했는데, 캠프 때 흰 눈을 보며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을 보내고 난 뒤부터는 방학 계획표를 꼼꼼하게 세워 계획대로 실천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루다보면 나중에 더욱 힘들어지겠죠?^^

정유경(10) / 초등학생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평소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많았는데,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실천하려 합니다. 적어 놓은 리스트를 하나씩 해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인숙(40) / 은행원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여행 목적과 체험할 곳 등 여행계획서를 갖고 와서 제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흔쾌히 승낙하지요. 아이들이 혼자 떠나서 배우고 느끼는 공부가 진짜 공부임을 아이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여행을 적극 권장합니다.

김정령(46) / 학부모



겨울방학은 전 학년과 새 학년의 과도기이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나 친구관계 등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깊은 사고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3 직전의 겨울방학에는 성적을 올리기에 좋은 시점이므로 여행과 함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한다면 고3 겨울엔 뿌듯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빈(19) / 고등학생

겨울방학에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아요. 스키나 썰매, 얼음낚시와 같은 활동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짐을 가득 싣고 친구끼리 우정여행을 떠나는 것도 권하고 싶네요.

윤혜린(31) / 교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꾸준히 나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활동으로 자신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이재영(30) / 대학원생

함을 파고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루함을 끝까지 파고들다 보면 그 속에서 살맛나게 하는 것, 진짜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석처럼 숨어 있을 거예요. ^^\n

홍정은(41) / 직장인

저는 지역 청소년과 함께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요. 등굣길 쾌적하게 바꾸기, 이웃과 시간 늘려 보기와 같은 활동들이지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경험은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요.

최미나(29) / 청소년활동가

꿈을 구체화시켜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커리어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흥미검사와 적성검사를 해보고, 결과로 제시되는 직업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직업 다섯 가지 정도를 선택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주변 분들에게 부탁하여 직접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용기가 커질 거예요.

우정호(49) / 교사

정희재 씨의 책 제목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심심한 권리, 빈둥거릴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죠. 이번 겨울방학에는 휴대폰, 컴퓨터, TV와 오래 이별하고, 마음껏 지루

아이가 항상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국내로든 국외로든 여행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짜는 일정이 아닌 아이가 참여하여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전체 일정 중 한 두 가지 일정은 아이가 직접 계획을 세운 후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과 기획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이석문(49) / 의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역사탐방을 친구와 같이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역사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동네 도서관을 방문하여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생각을 알고, 책을 읽는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 아이와 함께 하는 '도서관 투어'도 좋을 듯 해요.

이민혜(35) / 교사

전 우리 아이와 함께 각 지역마다 멋지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보려고 해요. 평소 일상에서 지쳐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로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에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구영복(40) / 유치원 원감

우리는 누구나 욕심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서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방학에 꼭 비우시길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지난 1년의 시간들에 대한 "후회!"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겠지만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훌훌 벗어버리는 자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빙자라는 또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결심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버리자 Regret! 채우자 Resolution! 그리고 Restart~!

황창호(47) / 교사

# NEWS BRIEFING

##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실현하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에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다. 대학의 총 등록금 14조 원 중 그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마련하여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 것이다. 2011년 기준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 원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장학금 3조1000억 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12년에는 1조7500억 원으로 '13년 2조7750억 원, '14년, 3조4575억 원, '15년 3조6000억 원으로 증액되어 왔다. 2015년 3조6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에 근로 장학금 2000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재원장학금은 총 3조9000억 원이다. 이는 2011년보다 650% 증가한 규모이며 수혜 인원도 122만 명으로 늘어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가 재원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대비 등록금 인하액이 7,000억 원, 교내외 장학금액이 2조4000억 원으로 총 3조1000억 원을 경감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적게 지원하여 소득 분위별로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기숙사 확충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과 학습 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성과 포럼 개최

서강대(정옥현 교수)는 이미지센서 설계 전문회사인 (주)픽셀플러스와 공동 투자해 (주)큐디플러스를 창업하였고, '양자점 기반 형광 물질 및 이와 연계한 바이오 진단키트(식중독균 검출 등)'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이하, BRIDGE) 사업단의 사업 사례다. 브릿지 사업은 올해 기술창업(50개), 전략분야 기술이전(60건), 실용화 시작품(100건), 지식재산권 설계(100건) 등의 실용화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브릿지사업단협의회는 최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성과' 포럼을 개최하고, 브릿지사업단의 실용화 우



수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의 기술실용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부의 브릿지 사업에 20개 사업단(총 5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학지원 사업과는 달리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화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교육민원 음성서비스 전면 시행

시각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등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는 모든 교육민원 증명서 (33종)에 대해 지난 12월 16일부터 음성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이번에 확대된 교육민원 음성서비스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졸업증명서 등 17종의 인터넷 발급 교육민원과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평생교육 관련 증명, 학생 증명 및 검정고시 증명이 모두 포함된다. 음성청취는 인쇄된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에 출력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가까이 대거나 스마트 앱을 다운 받아 실행–스캔하면 읽어주는 서비스이다.

## 특성화고·マイ스터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교육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592개 전체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과정에 맞춰 시행하는 평가로, 일반고의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여 이뤄졌다. 평가는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5개 영역으로 모든 직업기초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을 지난 12월 17일 개통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http://www.eduinfo.go.kr>)은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재정정보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되었으나 이번 공시포털 시스템 개통으로 356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가 통합 공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을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유학기제 민관 파트너십 시범사업단 발대식

교육부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과 체험프로 그램 개발 민간기업·단체는 중학교 자유학



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시범사업단이 발족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발족된 '자유학기제 민·관 파트너십 시범사업단'은 다양한 영역의 민간 교육전문가들이 개발한 체험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기업·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개발자 그룹 중심의 시범사업단은 민간부문의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의지와 잠재력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에 다문화를 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12월 21일 다문화 교육 지원 성과보고회와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294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시·도 예비심사 및 본선 심사를 위해 4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다문화교육 지원부문에서는 다문화 학부모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조옥이 실장(대전시교육청 서부다문화교육센터)이 선정되었다. 다문화교육 부문에서는 다문화 유아를 위한 통합·개별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김옥화 교사(충남 차동초병설유치원), 5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문화학생의 자립·성장을 지원한 권재은 교사(경북 예천남부초등학교),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힘쓴 양성숙 교사(인천한누리학교)가 선정되었다. ④

# 행복한 교육

##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에서는 책에 싣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발 행 일 2016년 1월 1일  
발 행 처 교육부  
발 행 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편 집 인 이승복 대변인  
기획총괄 이재력 홍보담당관  
곽은우 교육연구사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종로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총  
TEL 02-2271-0992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 五자만답

“새해에는 ○○○○○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은 서툴러도 아름답습니다. 새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교육’이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재치를 담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 ([happyedu.moe.go.kr](http://happyedu.moe.go.kr)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답 당첨자**

12월호 주제 : 학교란 ○○○○○하는 곳이다.

전정희(삶을풍성케), 백성영(청춘이성장), 김태림(동고동락을), 윤혜영(미생이완생),  
김미숙(조금씩전진) 님 축하드립니다.

가격 1,700원

자유 학 기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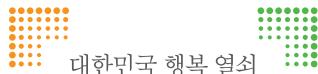
공 교 육 정상화 추진

선 취업 활성화

• 학습 병행 확산

사회수요 맞춤 형 인력양성

지방교육재정 개혁



교육혁  
6대 과제



# 꿈꾸는 중학생, 응원하는 대한민국

2016년 꿈·끼, 행복교육의 씨앗인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 됩니다.

아이들은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다

처음에 비슷비슷했던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장미로,  
또 어떤 씨앗은 우람한 떡갈나무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품은 씨앗인 학생들의 꿈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함께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체험·참여중심의 교실수업>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